

예레미야 2

2020년 월 일 초판 발행

펴낸이 김광욱 김영준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작성

예레미야 30:1-24		작성: 최정운	예레미야 43:1-13		작성: 정한조
예레미야 31:1-22		작성: 김광옥	예레미야 44:1-30		작성: 박성호
예레미야 31:23-4		작성: 정한조	예레미야 45:1-5		작성: 백정수
예레미야 32:1-44		작성: 이성실	예레미야 46:1-28		작성: 정한조
예레미야 33:1-26		작성: 이성유	예레미야 47:1-7		작성: 강요섭
예레미야 34:1-22		작성: 정한조	예레미야 48:1-25		작성: 김광옥
예레미야 35:1-19		작성: 임용완	예레미야 48:26-47		작성: 정한조
예레미야 36:1-32		작성: 이영란	예레미야 49:1-22		작성: 김완영
예레미야 37:1-21		작성: 정한조	예레미야 49:23-39		작성: 최정운
예레미야 38:1-28		작성: 정인철	예레미야 50:1-20		작성: 정한조
예레미야 39:1-18		작성: 김대인	예레미야 50:21-46		작성: 오웅식
예레미야 40:1-16		작성: 정한조	예레미야 51:1-32		작성: 김광옥
예레미야 41:1-18		작성: 이창호	예레미야 51:33-64		작성: 정한조
예레미야 42:1-22		작성: 김광옥	예레미야 52:1-34		작성: 김소리

묵상한 날 :

돌아오게 하시리라

예레미야 30:1-24

1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6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 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7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뉘를 얻으리로다 8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9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10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1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흘렸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
 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
 상은 중하다 13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14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
 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
 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15 너는 어찌하여 네 상
 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
 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16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
 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
 물이 되리라 17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돌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
 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
 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19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
 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
 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20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멸하리라 21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2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3 보라 여호와와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24 여호와와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 장 29장까지는 거짓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예언처럼 유다가 1,2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을 다 채워야 돌아올 수 있다는 어찌면 비관적인 메시지였다면, 이 부분에서는 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은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 30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 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맥락 안에서 3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12절부터 24절까지는 포로귀환의 약속과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예언(1-11)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모두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30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내용을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유다 멸망 70년 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 1차로 스룹바벨이,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3차로 느헤미야가 이끄는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역사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과 때로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개입 하심과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의 감정과 상황 속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매 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극적인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 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아굽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넌을 얻으리로다

포로 귀환이라는 소망의 큰 주제의 말씀을 주신 후에 곧바로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유대와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 또는 징계의 과정을 겪은 후에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있겠고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예상 못한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남자들이 손을 허리에 대고 얼굴이 질려서 새파래졌다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슬픔과 환난의 때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은 그러한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8-9)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 날에 멩에를 꺾어 버리고 포박을 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7절의 슬픈 그 날과 대조적으로 8절의 그 날은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며, 고난 속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멩에는 70년간의 포로생활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이 그 기간을 다 채운 후에 하나님은 그 멩에를 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새롭게 세우실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사한 말씀이 에스겔 37장 24-25 절에도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왕,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고 인도할 사명자가 필요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된 것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고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왕, 영원한 왕을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성군 다윗과 같은 인류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날이 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11절 역시 회복에 대한 반복적인 메시지입니다. 10절에 태평을 누리다는 단어는 본래 전쟁이 그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태평과 안락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는 이방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유다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켜 주시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수시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죄를 지적해 주실 때 그 순간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포로 귀환의 약속(12-24)

12절부터 24절까지는 전반부와도 비슷한 맥락 속에서 그동안 상처 받고 힘들었던 유대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는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상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고 그로 인한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

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고, 징계 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는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 하십니다. 혹시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 징계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또한 열방 중에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상처받고 실패하고 징계 받았던 자리에서 이제 다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비록 잠시 징계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지도자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변방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한 없이 부끄러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절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22)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언약은 먼저 그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과 유다 때문에 파기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

니다.

또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제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언약을 잊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23절과 24절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마무리 됩니다.

(23-24)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뜻하신 바를 행하시며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때에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멀리하며 시시 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우리 삶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와 이스라엘의 포로생활로부터의 회복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죄로 인해 포로된 것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에 얽매여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건져 주실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의 왕 되신, 영원한 다윗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늘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청지기로 함께 지어저 가는 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깨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날은 영원한 심판의 날이며, 또한 영원한 회복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일을 위한 디딤돌로, 먼 훗날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도 우리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때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고난을 통해 징계하심을 늘 기억하며 죄로부터 날마다 돌이키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2. 이해하기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었나요?
3.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 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4. 예레미야처럼 이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잠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려 봅시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예레미야 31:1-22

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리 갈 때에라 3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4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5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6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8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 곳으로 돌아오리라 9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10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흠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11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
 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12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와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 댄 동산 같겠
 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3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
 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
 임이라 14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5 여호와께서 이와 같
 이 말씀하시니라 라미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
 하는도다 1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 소리와 네 눈
 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샅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7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
 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8 예브
 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명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
 나이다 19 내가 돌이킨 후에 눕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기를
 족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지므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
 다 20 예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
 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
 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1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풋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22 반

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돌려 싸리라

예레미야 31장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31장에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 31장 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시간의 흐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1장의 예언이 선포된 시점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통치 말년, 즉 유다가 패망하기 전 어느 시기로 보아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28장에서 시드기야 통치 4년의 시기가 언급되었고 32장에서는 시드기야 통치 10년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29장에는 시드기야 통치 시기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가 파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27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속히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고, 28장에서는 시드기야 직전 왕이었던 여호야킨의 다른 이름 여고니야가 언급 된 것과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 안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예언과 거짓 예언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2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달

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참 예언보다 거짓 예언을 더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몇 년이 아니라 몇 십 년도 부족해 70년이라고 하니 포로로 끌려간 세대 사람들에게는 다시 본향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절망적인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31장은 30장 말씀의 연장선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70년이 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여 영원히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 대한 연민과 자비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에 대한 미련을 어찌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20절에서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31장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절입니다.

내 백성이 되리라

(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

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30장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복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흰 눈처럼 그 죄를 사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있듯이 영원한 사랑으로써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때에”는 쓰러짐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4절),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고(5절),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6절).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며 그로 인해 즐거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땀을 흘려 심어도 그 소출을 수확할 수 없고 수확을 하더라도 강한 자들에게 빼앗기지만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적당히 주시고 외세를 막아주시면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언제 외세의 공격을 받지 몰라 편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파수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편히 예배드리라고 외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안감이 없이 편히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북녘에 지하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 이 시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거 조롱거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러 민족들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틀림없고 확실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8)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 곳으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 북쪽 바벨론에 끌려갔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을 다시 살던 곳으로 모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땅 끝에서 모으시되 완벽하게 모으십니다. 건장한 사람만이 먼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들도 함께 포로에서 귀환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본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고 물이 있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을 느낄 것이고 이에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10)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흠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몸은 같은 영역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은 땅 끝에 머물러 있는 사람,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서 변방에 흩어져 있어 눈에 잘 띄지 않고 가
치 없어 보이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을 모으셔서 위로
와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12)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 댄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
쁨을 누리고, 여호와의 복 곧 물질의 복을 얻고 기뻐할 것이고,
마음이 물댄 동산 같이 근심 없이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하
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적 어
려움에서 회복되고, 심적인 고통에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러지면 마음에 근심은 사라지고 물 댄 동산같
이 평안해 집니다.

소망이 있을 것이라

2절에서 출애굽과 광야시절의 역사를 상기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15절부터는 라헬의 슬픈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애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는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을 뜻하며 위치는 북 이스라엘 베냐민 영역에 있었습니다. 이 곳은 라헬의 무덤 부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라헬이 자식 때문에 슬퍼 울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처지가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울고 있는 라헬에게 “네 울음 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못해주실망정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울고 싶을 때 울지도 못하면 어찌 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네 울음 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네 일에 샅을 받을 것인즉”은 이제 슬픔과 괴로움에 대한 대가, 위로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북 이스

라엘 사람들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로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18절과 20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자 라헬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못한 송아지 같은 자신을 징벌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목할 만한 고백이 18절 하반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리고 19절입니다.

(19)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지므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징벌을 통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권상실이라는 고난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을 받은 후 스스로 뉘우침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자신의 못남을 책망할 정도로 자기 성찰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라헬이 라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식 잃은 어머니

처럼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슬피 우십니다. 그런데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사를 부끄럽다고까지 고백하니 그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죄에 빠진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정표와 풋말을 세우고 돌아오는 길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와 풋말을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된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흰 눈처럼 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들의 슬픔을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식을 잃은 라헬의 통곡처럼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에게 대하여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옵고 또한 자식을 잃은 것처럼 절망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의 이정표와 뜻말을 따라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에게 “그 때에”가 있듯이 나에게 “그 때에”는 언제이겠습니까?
2. 불안감이 없이 편히 예배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3. 라헬의 통곡하듯이 내가 슬플 때 하나님께서 “네 울음 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4. 하나님께서 “내 창자가 들끓으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5. 가정이나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지어저 가기 위해 필요한 이정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23-40

2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24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25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언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26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27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28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29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30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3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

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36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8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9 측량줄이 곧게 가렷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40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와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돌아오게 될 것에 관한 약속(23-26절)

예레미야 30-33장은 유다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해야 하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로의 책(the Book of Conso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30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비록 바빌

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3-26절은 15절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4중적으로 약속하십니다.

① 15-17절에서는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본 어머니는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울음을 멈추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② 18-20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송아지가 멩에를 처음 쓰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온갖 수치를 다 겪은 후에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③ 21-22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방종하고 방종하는 딸과 같이 살았을지라도,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④ 오늘 본문 23-25절은 4번째 약속입니다.

(2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들이 “의로운 처소이며, 거룩한 산이여 주님께 복을 받아라”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돌아올 줄을 몰랐는데,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과 시온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곳이 얼마나 복 받은 곳인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교회가 없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오지 도시로 파견되어 거기서 7년을 지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거기는 인터넷도 되지 않는 곳이어서 매주일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내고 돌아와서 다시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자기가 찾아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은 파견되어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70년이나 됩니다. 그러니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의로운 곳이고, 구별된 곳입니다.

(24-25)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됨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농촌에서 모여 살게 되고, 목축을 하던 사람들은 양 떼를 몰며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연약하고 주린 심령은 배부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상쾌하게 하다’는 ‘메마른 땅에 물을 대 그 땅을 촉촉이 적서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찬송가 가사로 설명하면, 183장 ‘빈들에 마른 풀같이’의 후렴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는 ‘깊은 근심에 빠져 살고 소망이 희미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찬송가 가사로 설명하면,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의 3절 앞부분 가사인,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26)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23-25절의 말씀, 포로된 것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으로 돌아와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며,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이 달았다고 말함

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현재의 만족함으로 인해 과거의 고통은 꿈처럼 잊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이 달았다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의 삶이 단맛이 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될 백성의 영적 성숙(27-34절)

27-34절은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될 것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7-2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징계를 5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뿌리를 뽑다’, ‘무너뜨리다’, ‘전복하다’, ‘멸망시키다’, ‘괴롭게 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로됨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과

짐승이 모두 생육하게 번성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29-30)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로 인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는 일이
없고,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시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신
양생황에 ‘연좌제’는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됨에서 돌아온 후에는 자신들
의 책임이었던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
는 ‘책임감’입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는 자신이 잘못된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난 것
도 엄마가 깨워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숙제를 하지 않은 것도
다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핑계를 대
지 않고, “내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
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빌론에서의 포로생활이 자신들의 죄로 인

함임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1-33)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던 날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에 맺은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32절의 ‘남편이 되었어도’에서 ‘남편(바알)’은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이든, 주인과 종(하인)이든, 자기 남편을 또는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신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대에 계약은 짐승을 잡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계

약 당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그 짐승과 같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약(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과 다시 새 언약을 맺어 주시고, 영원한 계약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영원히 인도하심의 약속(35-40절)

35-40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35-3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여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낮의 해와 밤의 달, 하늘의 별들 그리고 바다를 불변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일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우리는 청혼할 때에 반지를 손에 끼워주며, 반지의 색깔처럼 변치 말자고 합니다. 그런데 반지의 색깔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

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또 반지를 팔거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인 2500년 전에 있었던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가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마 2500년 후에도 지금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가 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38-40)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벨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립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의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은 후에 느헤미야가 재건했지만, 그 후에도 여러 번 약탈을 당했습니다. 특히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 당했고, 그 후에 완전히 초토화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성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

십니다. 그래서 이 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은 영적인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거룩함을 유지할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들을 돌아오게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더욱 바른 삶은 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오늘이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겨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영원한 예루살렘을 세워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즐기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한 평생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매일매일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오늘이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상쾌하게 하다'와 '연약하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앙생활 중에 피곤한 당신을 상쾌하게 해 주시거나,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약 지금도 일어난다면,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2. 일반법에서는 무론 신앙에도 연좌제가 없음에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자녀가 이가 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3.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확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가장 최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35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32:1-44

1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 그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3-5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6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7.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무를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8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무를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9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십칠 세겔을 달아 주되 10 증거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11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12 나의 숙부의 아
 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 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
 게 부치며 13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4 만군의 여호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
 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
 하게 하라 1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16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 준 뒤에 여
 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7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피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
 다 18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
 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지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
 니이다 19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20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
 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21 주
 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피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
 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2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
 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23 그들
 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24 보웁
 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

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5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받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
 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26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
 하여 이르시되 27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28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
 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29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을
 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방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
 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30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
 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 한 것뿐이나라
 여호와의 말씀이나라 31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32 이는 이스라
 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
 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33 그들이 등을 내
 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
 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34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
 게 하며 35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
 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
 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36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7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어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38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될 것이며 3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43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유다의 시드기야 군대를 포위 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으며 그에 비해 남유다는 변방의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은 한마디로 풍전등화의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미움을 받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다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은 못할지언정 나라가 곧 망할 거라고, 또 왕은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끌려가게 될꺼라고, 그리고 끌려갔다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 말했으니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행동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7-9)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무를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무를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십칠 세겔을 달아주되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의 뜰 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면회 온 친척 하나멜이 하는 말이, ‘내 땅을 좀 사라’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장 가치 없어지는 1순위는 그 나라 화폐, 돈이고 그 다음은 망하는 나라의 땅일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돈도 땅문서도 휴지 조각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와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또 사란다고 그 땅을 사는 예레미야나 이해가 안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를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삶 속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면 일단 피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기 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거부하고 싶은게 인지상정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을 모면할 방법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들을 주셨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한 눈으로는 이 땅을, 또 한 눈으로는 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인간의 시선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와같은 일을 허락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도록,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키시는 이유는 지금은 그 땅이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만, 반드시 회복시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와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때로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16절부터 3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한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다시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망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주체할 수 없는 슬픈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퍼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이끌어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지금 갈대아인에 의해 이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살게 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복음 12:7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신 분입니다. 하찮은 머리털 하나

가 나고 빠지는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은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27) 그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와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분은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늘 우리에게 유리한 일만 일어나게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28)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에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선택받지 못한 백성, 갈대아인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해주시기를 기대했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35)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한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상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 선택받지 못한 백성에게 처참할 정도로 유린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부터 백성들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분이 오늘 예레미야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모든 환경,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약속한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였을지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휴지 조각리에 불과한 땅문서를 돈주고 사라 할지라도,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지라도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느냐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에도 기대와 다른 현실의 문제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와같은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40-41)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2018년 교회 표어가 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자, 그 분은 반드시 나를 푸른초장으로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자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분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속에 직면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삶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오늘이 내일을 향한 디딤돌인 이유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갈대인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열매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기대와는 것과 달라 많이 힘들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을 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일을 향한 오늘의 디딤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로 나아가게 하시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칭찬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해가 안되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2.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으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까?
3.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며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4.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내 삶의 환경은 우리 미래를 위한 디딤돌임을 믿으십니까?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예레미야 33:1-26

1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길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5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6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푸는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푸는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10-1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 떼를 높게 할 것이라 13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겟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 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9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21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22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23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4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

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2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26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붙잡히 여기리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으로 30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의 종결 부분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증이며,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후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치료해주며 다시금 세워주시는 회복의 하나님(1-13절)

(1-2)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아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라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성호로 세 번이나 높여 드리는 것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됩니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미움을 받으며 시위대에 뜰에 갇히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여호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애를 쓰다 보면 주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하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시위대의 뜰에 갇히는 것과도 같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결코 낙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며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편이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이시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확실한 전망을 알려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선 36장 12절에서 25절에도 분명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을 것을, 기도할 것을 또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도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영적 용광로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이 더욱 확고부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견고해진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영적 창구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4-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군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항해 보지만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어져 그들을 외면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차단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을 빼앗기며 처참하게 도륙 당하게 될 것은 그들의 죄악의 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9)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비록 악행을 범하며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참혹한 상황속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성과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날을 약속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이전처럼 다시 세우고 그들의 죄와 반역 행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 칭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과 별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의 회초리를 드실 것이며 결국 그들은 치명적인 상처 속에 소망없는 나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긍휼의 손을 펴사 그들을 치료하며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말씀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

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죄와 허물 속에 영원히 멸망할 소망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사 죄로 막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담을 허물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분홍빛 보다 더 붉었던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하얗게 씻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임에도 우리 또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벗어나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아플 만큼 징계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징계하실 때에는 오히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그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뭇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10-1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

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 떼를 늙게 할 것이라

죄악으로 황폐해 졌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기쁨의 소리들이 들려 올 것이며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목자들의 초장까지 생겨날 것입니다. 이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은 생명과 터전을 소생시키는 동인(動因)이 됩니다.

죄로 인해 심령에 황폐함이 깃들여 있고 삶의 터전이 소실되었다고 느껴질 때, 내 삶을 부정하고 증오하며 다른 이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약속(14-26절)

이제 본문 14절에서 마지막절인 26절까지는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약속입니다.

(14-18)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날이 곧 올 것이며 그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할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며 그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으로 칭송받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이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본문의 ‘한 공의로운 가지’ 는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로 유다 왕위 계승자인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인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 새 성전의 기초를 놓음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더 나아가 본문의 ‘한 공의로운 가지’ 는 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19-22)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낮과 밤이라는 자연법칙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예로 드시며 당신의 약속 또한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과 당신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다윗의 후손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또한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언약에 대한 수혜자들인 셈입니다.

(23-26)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중단없이 약속을 이행해 나가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해 범죄에 대해 징계는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며 반드시 성취되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진리를 행하시되 설령 반대
대에 부딪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주님께
편에 서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주님
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며 평화의 경작자로 나아가시는 사
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죄인이었던 저희를 영적 다윗의 후손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진리를 행하며 주님의 편에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저희의 죄악으로 인해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사 바른 삶으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령 진리를 쫓다가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주님 편에 섬으로 평화의 경작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3절)? 최근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은 언제입니까?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5절)? 현재 내가 끊어 내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여 낫게 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6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상흔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4.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다윗의 후손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22절). 그런 나임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편에 서 있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37

내 이름으로 내 앞에서

예레미야 34:1-22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3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4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항하던 것 같이 네게 분항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6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7 그 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라 8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9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

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12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3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14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칠 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육 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15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16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17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18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19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20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21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2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
 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시드기야왕에 대한 예언(1-7절)

예레미야 34-45장은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함락 전
 후의 사건과 예언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도 예
 루살렘 함락 직전에 시드기야왕에게 들려진 예루살렘의 운명과
 시드기야 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함락 당하기 2년 전인 주전(B.C.) 588년부터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헛된
 위로를 전했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헛소리’에 불과했고, 예
 루살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함락되기 직전에 있었습니
 다.

1절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의 모든
 군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은 모두 바빌로니아 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초강대국인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과 모든 도시들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국난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이날 것(초토화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곧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이런 내용을 얼굴을 맞대고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그것도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쥐고 있는 왕에게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을 내놓아야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드기왕 개인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3-5)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아 왕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너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나라가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아왕도 붙잡혀서 바빌로니아의 왕 앞으로 끌려가서 직접 대면을 통해 항복을 요구 받게 될 것이고,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대에 중동에서 피지배국이 지배국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기거나, 충성맹세를 배반하게 되면, 지배국의 왕은 피지배국의 왕을 자기 나라로 붙잡아 가서 징계를 하던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었습니다.

시드기아왕은 당시 중동지역의 패권을 잡은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어쩔 수 없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 8년 즈음에 애굽의 군대가 유다 방면으로 진격해 오자, 바빌로니아를 배반하고, 애굽에 붙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왕은 유다를 다시 침입해 와서 1년 이상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마침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왕은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사람들은 조가를 부르며 조가(애가)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자신도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들의 죽음과 신하들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빌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는 2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빌로니아의 왕에게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드기야왕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시드기야왕에게 전해 질 때에 유다의 상황이 어

떠하였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7) 그 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기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다라

유다 중에 함락당하지 않고 남은 도시는 단 3개, 예루살렘
과 라기스와 아세기이었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기는 유다 남쪽에
위치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40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1950년 6.25전쟁 때, 전쟁발발 두 달 반 만에 남은 것은
낙동강 방어선 이남밖에 없었습니다. 대구 약간 위쪽입니다. 달
성, 칠곡, 군위, 영천, 포항 이남 지역입니다. 그 때에 인천상륙
작전으로 다시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었습니다. 지금 유다가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에 대한 약속위반(8-22절)

8-22절은 히브리 노비 해방의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을 향
한 질책과 심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질책을 들어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9-11)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종에 관한 법은 이러하였습니다. 같은 히브리인(유대인)을 종으로 샀으면, 6년 동안은 일을 시키고, 7년째에는 종에서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왔으면 홀로 나가게 하고, 결혼한 상태로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게 했습니다. 홀로 왔다가 주인이 결혼을 시켜주어서 처자식이 생겨도 혼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때에 내가 주인과 처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 주인은 종의 귀를 뚫어서 평생 그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법이었는데,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다.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줬다가 빼앗는 것은 더 나쁜 것이듯이, 종이 되었던 히브리(유대인) 남녀를 자유인이 되게 했다가 다시 끌고 와서 종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2년 전에 바빌로니아 군대에 포위가

되었을 때에, 노비 해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을 때는 노비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명의 군사도 아쉬웠기 때문에 노비들이 자발적으로 군사적 행동에 동참하게 하도록 하는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해 오자, 바빌로니아 군대는 잠시 포위를 풀고서 외곽으로 퇴각하였었는데, 그 때에 시드기야왕은 예루살렘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노비 해방령을 철회하고, 다시 주인에게 매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단지 정책이 바뀐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뜨린 것으로 여기시고, 그 결과가 더욱 혹독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17)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 표현은 굉장히 언어 유희적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내(여호와 하나님)가 형제와 이웃(남 녀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는지? 이젠 내가 너희들에게서 자유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전쟁과 전염병과 굶

주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너희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전쟁, 전염병, 굶주림은 하나만 있어도 고통스럽고,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재난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것들이 한꺼번에 올 뿐만 아니라, 나라 잃은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또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굉장한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유대인) 노비 해방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징계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8-21) 송아지를 둘로 찢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은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당시 중동에서는 엄숙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보통 흠 없는 1년

된 수송아지를 잡아서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송아지 피가 흥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피를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언약을 어길 시에는 갈라놓은 송아지처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노비 해방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에게 ‘내 계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 백성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바빌로니아로 넘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재확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잠시 풀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초토화가 되어서 황무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가 패망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드기야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파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걷다가 손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걷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유다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복된 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유다가 초토화되고,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 함락을 당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야 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남녀 노비를 자유하게 해 주었다가 다시 속박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나니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게 될 때에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녕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드기야는 유다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낭패를 당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얻은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2. 유다 백성들이 노비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가 다시 종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샅습니다. 당신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못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 때에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3.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편에서 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38

순종의 레갑 사람들

예레미야 35:1-19

1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와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3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4 여호와와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5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 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11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

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에 살았노라 12 그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
 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4 레갑의 아들 요나
 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
 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
 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5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
 니하였느니라 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
 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
 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
 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18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
 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 그러므로 만군
 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 듣는(순종의) 레갑 사람들(1-11)

(1)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불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6)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에,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7)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집을 짓지도 않고,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지도 않고, 장막에서 유목민으로 살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설명합니다.

(11)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방 군대의 위협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잠시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피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레갑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의 정착 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코 듣지 않는(불순종의) 유다 백성들(12-19)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14-15)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서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거듭 말해도 그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답답함을 다음과 같은 대비로 하소연 합니다.

(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사람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 일지라도 순종하나, 너희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급기야 하나님은 선조의 명령 일지라도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며 그들에게는 영원한 복을, 반면에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책망하며 그들에게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17)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19)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단순합니다. 선조의 명령일지라도 순종하는 레

갑 사람들은 복을,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솎마'입니다. 본문에서 9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8절(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10절(명령한 대로 다 지켜), 13절(내 말을 들으며), 14절(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5절(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듣지 아니하며), 18절(명령을 순종하여)입니다. 히브리어 '솎마'는 '듣다'가 원 뜻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솎마). 듣고(솎마)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솎마) 않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다시 말해 레갑 사람들은 듣고(솎마),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로 솎마).

그런데 오늘 본문은 레갑 사람들의 '솎마'(들음, 순종)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솎마'하지 않음(로 솎마, 듣지 않음, 불순종)을 대조, 대비, 부각시키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시 말해 선조의 명령을 철저히 '좌마'하는(듣는) 레갑 사람들의 순종의 삶을 본보기로, 유다 백성들의 '좌마'하지 않음을(듣지 않음을) 폭로하며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좀 보라. 이렇게 듣지 않는, 귀를 막은, 악독한 백성이 있다!"

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예언서의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상징행동'(A Symbolic Action)입니다. 이는 드라마틱한 상징적 행동으로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를 강조하고 부각시키며 설명하는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가 창기 고멜과 결혼합니다(호1장). 이는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며 부각시키는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않고 자식도 두지 못합니다(렘16장). 이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암시 및 강조하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이를 창기와 결혼하는 호세아처럼 순종 잘 하자거나, 결혼도 말고 자식도 두지 않는 예레미야의 순종을 닮아가자로 적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갑 사람들의 행동(삶) 역시도 상징적 행동(삶)입니다. 그 상징적 행동(삶)을 통해 강조하며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하며 삽시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독하게 말을 듣지(좌마) 않는 백성이 있습니다."를 부각, 강조,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듣지 않는, 들으려 하지 않는, 완고한 이 백

성에게는 심판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재앙이 멀지 않습니다!"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서는 유다 백성에게 심판과 재앙이 임박함을, 패망의 길로 갈수 밖에 없음을 논거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우리 역시도 유다 백성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께 '좌마'하는(귀 기울여 듣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심판'과 '재앙'이 마땅한데, 우리 대신 심판과 재앙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의 편에 서며 진리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목이 굳고 완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니 들으려 하지 않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
딱 저희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희가 그토록 악할지라도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저희의 재앙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그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불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합니다(1절).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집을 짓지도 않고,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지도 않고, 장막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8-10절). 이 철저한 순종의 삶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당신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이런 철저한 순종의 때가 있었습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 레갑 사람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 일지라도 순종하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16절). 당신의 누구와 가깝습니까?
4. 오늘 본문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39

기록하고 낭독하라

예레미야 36:1-32

1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3 유다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4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7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8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9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오년 구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10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11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아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12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라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13 미가아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14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셸레
 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
 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15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
 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16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17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 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18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 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19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
 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20 그
 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21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22 그 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23 여후디가 서
 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26 왕이 왕의 아들 여라므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리아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27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8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29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3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31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32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제18대 왕인 여호야김 때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고 낭독하라(1-10절)

2절 말씀입니다.

(2)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여호야김 통치 4년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첫
사역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때
는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지 약 23년이 지난
때로 고대 근동의 패권이 신바벨론 제국에 넘어간 시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1차 침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
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루마리 책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4절).

이 기록된 말씀은 예레미야의 지침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낭독되었습
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명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된 책의 형태로 보존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대로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유다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읽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
시기 위함입니다. 선포되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접하는 당신의 언약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와 말씀의 선포할 것을 요청하며 백성이 여호와와 말씀을 듣고는 기도하며 각자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7절입니다.

(7)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매우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하기를 기대했고, 가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컸기 때문입니다. ‘노여움’으로 표현된 단어는 콧구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화가 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콧구멍이 넓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노여움’이라는 의미까지 나타내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분’은 몹시 뜨거운 현상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극도로 분노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여움과 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좇았던 유다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 중 국가의 운명을 바꿀 만큼의 회개와 갱신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책에 기록된 여호와와 말씀의 다 듣고(11-32절)

서기관 바룩을 통해 기록된 말씀은 성전에서 백성에게 낭독되었을 뿐 아니라 왕의 고관들의 귀에도 낭독되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16)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셸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놀라움’이라는 표현은 ‘정서적으로 거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유다의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자국이 멸망당할 것이며,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듣고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관들은 자신들이 직접 들은 말씀을 여호와야김 왕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 숨도록 조치하고, 두루마

리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숨겨두고, 왕에게 가서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고관들이 숨겨두었던 두루마리를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오게 합니다(21절). 두루마리 속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반응을 23절이 증거합니다.

(23)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은 여후디가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대로 서너 쪽씩 면도칼로 베어서 화로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왕의 행동은 이스라엘 역사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수많은 망령된 일들 가운데 가장 극악한 사건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이 같은 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을 말씀이 두 번째로 기록된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9)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아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 자국의 죄악 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서 바로 행하도록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엘라단을 비롯한 소수의 신하들이 두루마리 책을 불사르지 말 것을 간청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숨기셨다고 26절이 증거합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없애기만 하면 자신이 방금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진원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인이심을 여호야김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는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태워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록에는 책을 불태우며 하나님께 정면 도전했던 여호야김 왕의 행위가 추가로 기록되었습니다(29절). 또한 왕의 최후와 왕에 동조했던 신하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곁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 바룩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기록하는 자’라는 의미로 글을 대신 기록하는 사람이었기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 식견이 깊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룩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예레미야 곁에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곁에도 고위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소수의 고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왕의 정책을 좋아하며, 그에게 동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31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귀 닫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던 자들처럼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진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경작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에서도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한 바룩의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2. 만약 내게도 동일한 것을 명령하셨다면 주님께 어떤 답변을 드리시겠습니까?
3. 바룩과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결심이 있으시다면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4. 주님의 명령에 주저함이 있다면 주저하게 하는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감옥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 37:1-21

1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아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 이었더라 2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3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4 그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 었더라 5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6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7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10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11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12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

로 가려 하여 13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나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행복하려 하는도다 14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행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 가매 15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라 16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17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 지리이다 18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 이까 19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 이까 20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21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허수아비 왕 시드기야(1-10절)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왕은 유다로 진격해 와서 대부분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있었는데,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포위를 풀고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약 1년간 포위하여 마침내 함락했습니다.

다. 오늘 본문은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풀었던 때인 주전(B.C.) 587년 전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5왕(16-20대)은 모두 요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시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요하난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16대왕의 요시아이었고, 17대 왕이 요시아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살롬)인데 3개월을 다스렸습니다. 18대 왕이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엘리아김)인데 11년을 다스렸습니다. 19대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아의 손자인 여호야긴(엘리아긴)인데 3개월을 다스렸습니다. 마지막 20대 왕이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인데 11년을 다스렸습니다.

(1)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고니아’는 19대 왕인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긴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1년간 통치하면서도 줄곧 반바빌로니아 정책을 쓰며,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빌로니아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가 뜨는 해와 같았다면, 애굽은 지는 해와 같았습니다.

(2)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아왕이 친애굽-반바빌로니아 정책을 펴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20년 이상을, 유다가 살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빌로니아 군대를 보내신 것이니,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당했고, 그는 매국노와도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박해받는 선지자의 샘플과도 같습니다. 그 박해를 최대로 확대하여 신약으로 옮기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됩니다.

(3-5) 시드기아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시드기야왕의 두 사람, 여후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증보기도를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과 먼저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 포위를 걷었을 때였습니다.

시드기야왕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낸 두 사람 중 한 명인 ‘여후갈’은 성경에서 2곳, 본문과 38:1(유갈이라고 나옴)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사람과 어울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창 구덩이에 빠뜨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대제사장 다음 가는 사람으로, 여러 제사장에게 영향을 미치며, 시드기야왕에게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갈대아 출신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신)바빌로니아제국을 창건한 나보폴라살이 갈대아 출신이었고, 그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갈대아 출신의 사람들을 대거 중용하였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군대는 갈대아 사람(군대)로 불렸습니다.

시드기야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기도를 부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평소에는 말씀을 외면하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라고 말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응답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7-9)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을 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빌로니아 군대가 물러갈 거야”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그냥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부탁한 시드기아왕을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드기아는 기도를 부탁은 하지만 자신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왕은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를 부탁했지만, 자신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10)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다의 군대가 바빌로니아 군대에 결사항전하여 바빌로니아 군대가 부상병(패잔병)만 남아있게 된다고 해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부상병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고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망하게 되었으니 ‘꼴좋다?’가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투옥(10-21절)

11-21절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그

것을 잠시 풀었을 때에 있었던 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금당했던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2-13)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나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는 당연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 군대가 약 3개월 동안 포위를 풀었을 때는 비교적 자유롭게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집안의 상속재산을 받을 일이 있어서, 고향 아나돗이 있는 베냐민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큰 성문인 ‘베냐민문’을 통과해야 고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수문장인 이리아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항복하러 가고 있소.” 억지로 짐작하며, 모함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평소에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전한 메시지를 곡해하여, 조국을 배반하고, 조국을 바빌로니아에게 팔아넘기려고 가고 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자신의 상상을 굳게 믿었습니다.

(14-15)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행복하러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 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라

수문장 이리야의 억지 주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항의하며 말했지만,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 끌고 갔고, 고관들은 화를 내며 때린 후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일했던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국사범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국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의 집을 감옥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면, 그것을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로니아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간다고 의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할수록, 사실이 기 때문에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하 토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여러 날(문자적. 많은 날)동안 지냈습니다. 적어도 2-3달은 갇혀 있었습니다.

(17)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하루는 시드기야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테리고 왔습니다. 1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께 예언하던 왕의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었던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진격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드기아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가,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시 진격해 오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 선지자를 꺼내 오게 하여,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드기아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지하 토굴 속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께서는 바빌로니아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을 왕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18)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아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20)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감옥에 갇힐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을 제발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기를 탄원합니다. 거기로 가면 다시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정결한 통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인 것은 우리와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안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21)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요나단의 집 토굴 감옥으로는 보내지 않았지만,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왕궁의 경호원들이 머무는 곳에 있는 임시구류지에 가두고, 매일 빵 한 덩어리씩만

넣어주어 죽지 않도록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편에만 섰습니다. 그의 반대편에는 시드기야왕과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쓰디 쓴 것이었습니다. 조국이 망할 것이라고, 바빌로니아에게 항복을 해야 살 수 있다고,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부상병만 남아도 이길 수 없고,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탈 것이라고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러 간다고 모함받기도 하고, 구타를 당한 뒤에 불법적으로 감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몹시도 두려웠지만, 왕 앞에서 하나님을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곳이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드기야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당신이 행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2. 베냐민문 수문장인 이리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러 간다고 모함하여 지하 토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신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 때에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3.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시드기야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도우심을 간구해 봅시다.
4.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형님과 남은 옷을 가져다가

예레미야 38:1-28

1 맛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라와 쉘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4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을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5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6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7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8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9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10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11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공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형겟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12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형겟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13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14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와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15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16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17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18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19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20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 바 여호와와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21 그러나 만일 항복하
 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22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꺾어 이기고 네 발
 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23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
 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
 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
 이다 24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25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
 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
 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
 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26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27 모든 고관
 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
 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28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 앞에 예루살렘의 사
 람들은 상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에 따라 그들의 결국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상이한 반응
 으로 인하여 예레미야가 서게 되는 장소는 변했지만, 그의 메시
 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시대나 상황에 따

라 바뀌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덩이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1-13)

시위대의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고, 당시 고관들이었던 스바다와 그다라와 유갈과 바스홀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와의 신탁으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확실하니 살고 싶다면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처음 선포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21장에서도 선포되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포를 매국적인 발언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도리어 민족을 버린 선지자로 매도했습니다.

이를 반증이나 하듯 백성들을 대표하는 고관들, 스바다와

그다라와 유갈과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시드기야 왕에게 청했습니다.

(4)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관들은 그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재난을 구하고, 그의 말로 인해 성 안에 남아서 싸우는 군인과 모든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고관들을 위시한 백성들은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지게 되었습니다.

(6)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담대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예레미야였지만, 그의 처지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뿐 아니라, 그 구덩이에는 물도 없고 진창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외로움이었습니다.

물도 양식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손이 미칩니다. 그것은 유다의 왕이나 고관들도, 유다의

백성도 아닌, 유다의 전통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회조차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방인 구스사람이자, 내시인 에벳멜렉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11-13)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밧줄만 챙겨가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벳멜렉은 왕궁 곳간 밑 방까지 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챙겨가지고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먼저 헝겊과 낡은 옷으로 밧줄이 닿게 되는 겨드랑이를 대고 밧줄을 텃대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유다의 멸망에서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39장에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았지만, 도리어 곤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구스사람이자 내시였던 에벳멜렉이 형겟과 낡은 옷으로 세심하게 구원의 손길을 뻗었던 것과 같이 곤경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섬세한 도움의 손길로 구원의 밭줄을 내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의 물음(14-28)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시위대의 뜰에 머물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는 다시 한번 만남을 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 시드기야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언하기를 꺼렸습니다. 이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회유하기 위하여 맹세합니다.

(16)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써 예레미야를 회유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맹세에 대하여 비밀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시드기야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태도는 백성들을 의식한데에 있었고,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고관들

이 찾아왔을 때와 에벳멜렉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모습 속에서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밀스러운 맹세 앞에 예레미야는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7-18)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에 대한 시드기야의 대답은 우리의 할 말을 잃게 합니다.

(19, 새번역)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 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한 나라의 존패를 결정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까 두려워 항복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왕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침착하게 여

호와의 신탁을 전하여 그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20)” 이러한 설득에도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한가지 부탁을 합니다.

(24)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둘이 나누는 대화를 함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구해달라는 부탁도 사실상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의 대화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은 이미 백성들도 듣고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를 보면서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구스사람이자 내시였던 에벳멜렉과 같이 옳다고 판단하고 정한 것을 추진할 수 있을만큼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유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었고 타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비밀스러운 맹세였으나 맹세까지 하면서 예레미야와의 대화, 즉 여호와의 말씀을 청하는 장면을 보면서 유다에게

찾아온 일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한 기대였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할 용기나 결단도 존재하지 않은 무책임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는 계속되는 거절로 인해 상실되었고, 이제 멸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암시하듯 성경은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복선으로써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28)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답정너’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는 ‘답은 정해져있고 년 대답만 하면 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요즘 다이어트하는데 살 좀 빠져보이지요?”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강심장의 남편도 여기서 “아니, 그대로인거 같은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질문을 답정너라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아니 시드기야를 포함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답정너의 태도로 질문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질문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평안을 약속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관들을 위시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시드기야는 자기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그러

나 그러한 유다의 사람들과는 달리 구스사람 즉 이방인 에벳멜렉의 형겔과 낡은 옷이 위기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구해주었습니다. 마치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조롱받던 나사렛의 목수였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군사적 방법이 아니라, 저주의 형틀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미쳤던 것처럼, 기대하지 않는 곳을 통해 구원의 손길이 미쳤습니다.

최근 세상의 많은 이슈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답정너의 태도로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면,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답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러한 타협적인 상황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한치의 두려움이나 물리섬 없이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 우리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다주고, 직장과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며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기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레미야에게 구스 사람이자 내시였던 에벳멜렉의 형겔과 낡은 옷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나사렛 사람이자 목수였던 예수님, 그분이 지셨던 최악의 형틀,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 곳곳이 선다면, 십자

가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강이 우리를 통로삼아 세상 가운데 흘러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평화의 경작자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답정너의 태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찬성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것이 싫다면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러한 요구 앞에 우리가 가치중립이 아니라 가치를 주님께로 둔 가치주님의 태도로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로 피해를 입을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곤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걸어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를 행함으로 반대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를 평화의 경작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드기야는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다. 당신의 신앙생활 중에 당신이 해야 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묵상해봅시다.
2.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듣고 싶은 답이 있었고, 그와 상충되자, 분노가 예레미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답과 당신의 답이 다를 때, 그동안의 당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묵상해봅시다.
3.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원하는 답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당신의 삶을 막아서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담대함을 위해 기도해봅시다.
4. 세속적 가치관을 요구하는 세상 앞에도 하나님 앞에서 꼳꼳이 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42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예레미야 39:1-18

1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구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2 시드기야의 제십 일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3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갓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갓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4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5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6 바벨론의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8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9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10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1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13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14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15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6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눈 앞에 이루어라 1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루살렘의 함락(1-10)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며 공격하는 중입니다. 바벨론은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포위하여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과 멸망 직전의 약소국이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오히려 1년 6개월이나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고 맙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구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십일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어쩌다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까지 전락해버렸을까요? 그것은 한 번의 실수로 된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 가해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고, 예루살렘 함락 직전 많은 사전 경고를 주심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심판이 도달하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궁중 장관이던 네르갈사레셀과 직책이 기록되지 않은 삼갈네부, 내시장 살스김이 예루살렘 중문(中門)에 앉았습니다. 바벨론의 고위직 간부들이 예루살렘 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중문에 앉았다는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이미 바벨론에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가 1:15에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렘1:15)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밤의 어둠을 틈타 성을 버리고 도망하

였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절이며, 백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못난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던 자의 최후는 늘 이렇게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아라바로 향하려던 시드기야 왕의 일행은 도중에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 구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한 시드기야는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과 귀족들이 죽고,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본문 6-7절입니다.

(6-7)바벨론의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느부갓네살과 그 장관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과정이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도 그런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명령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백성이라도 이방인에 의해서 단죄하십니다. 심약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과 왕의 가족이 살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바벨론에게 항

복하면 바벨론 백성들이 자기를 유다 백성에게 넘길 것이며, 자신을 조롱하고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렘38:19)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행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기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내린 결론에 갇히면 객기(客氣)가 나타나게 되고, 그 객기로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객기 대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심판 역시 엄중하고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의 나의 불안, 걱정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거짓 성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 역시 무너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37:1-3)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풀려난 예레미야, 구원을 약속받는 에벳멜렉(11-18)

아들들과 측근들이 죽고,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갇혀있던 감옥에서 석방되고, 원하는 곳에 살도록 선처를 받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살필 사람으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세워집니다. 사반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 읽어주어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도운 인물이며, 아버지 아히감도 정부 요직에서 요시야를 도왔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멸망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선처로 풀려나기 전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이 15-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18)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눈 앞에 이루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바벨론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치던 그때에도, 왕은 사로잡히

고 세력가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누구도 생명을 장담하지 못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던 에벳멜렉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함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라도 구원하실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늘 예레미야를 보호하느라 이스라엘 세력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던 에벳멜렉은 사방의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에벳멜렉은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레미야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는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입술이 둔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함에도 애굽 왕 바로앞에 서라는 것은 다리가 떨리는 일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변명에도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던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던지 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힘든 명령입니다.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믿고 따르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완고한 아버지는 술에 취해 사실지는 몰라도 성령에 취하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고집 세신 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기보다 억척스러운 말로 분위기를 깨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한참 사춘기를 지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예전처럼 살 맞대며 사랑과 행복 가득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이제는 상상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격의 순간은 늘 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 명의 고넬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늘 손해를 선택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낮아지며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신실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 늘 세상이 버겁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뜨겁지는 못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는 한 걸음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지려하지 않고, 지기 힘들어하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에벳멜렉이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고넬료를 통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는 그물과 말씀에 의지하여 걷는 걸음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모두가 휩쓸려 내려가는 듯한 세상입니다.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쓰러지고 무너져버렸습니다. 버틴다고 버텼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언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까? 여전히 세상은 기세등등하고, 사람은 등을 돌리며, 누구 하나 의지할 이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기적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손 내밀어 주셔서 무너진 감정과 마음, 갈라진 관계와 기대가 모두 회복되어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일으키시는 약속의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오니 우리와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까?
2. 혼자 살겠다고 아라바로 도망가는 시드기야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까?
3.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이 나라가 망하는 때에도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가망없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도 오늘 하루 용서와 회복의 날을 보내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선포해야 할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묵상한 날 :

43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

예레미야 40:1-16

1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4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 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5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말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6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7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8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 후렛의 아들 스리아와 느도바 사람 에배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9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10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11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 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12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13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14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비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15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흠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라 하니라 16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석방(1-6절)

예레미야 39-45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로부터 몇 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과 예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이 1년 6개월을 버틴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지라도 영원히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전에 시드기야는 눈 앞에서 자기 아들들과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 때 시위대(근위대)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은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말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석방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 당함으로 마침내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시위대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39장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라마에서 풀려났다고 하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마 이러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위대 뜰에 설치된 임시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석방되어서 총독 그다라(그달리아)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일반 유다 백성으로 오인되어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다시 붙잡혀서 포로행렬에 합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본 느부사라단 사령관의 도움으로 다시 풀려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성경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한 때가 라마에서 풀려난 직후임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였음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풀려났다는 사실이나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씩 풀려나야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 상황에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일상 가운데서는 물론, 시위대의 뜰에 구금되어 있을 때에도, 오늘 본문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서 들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말씀이나 설교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경건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풀어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정복자입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군사력이 바빌로니아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고, 국가 경제력이 부실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의 패망의 원인이 ‘범죄와 불순종’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보다 유다가 무너진 이유를 더 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오르고 싶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더 많은 것을 움켜쥐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은 영적인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4)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 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권했습니다. 즉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보이면 자신이 뒤를 보아줄 터이니 함께 가고, 만약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남아 있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큰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작고, 미미한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6)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사라단 사령관의 제안을 물리치고 바빌론으로 떠나지 않고, 자기 백성들 곁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떠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자신의 조국 유다는 이제는 망해서 더 이상 국가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남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대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나라는 망해 있고,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들대로 서글픔 속에서 바빌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일이 없고 악기를 연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았

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처량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 배운 것 없는 사회의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함께 살기로 결심한 백성을 7절에서는 ‘빈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갈 자격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총독 그다라(7-12절)

7-12절은 유다가 망하고, 유다의 초대 총독이 된 그다라(그달리아)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유다의 재건을 시도했던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루는 미스바에 있는 그다라에게 여러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때에 그다라 총독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10)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다라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다 백성 모두가 사는 길은 갈대아(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섬기고, 바빌로니아의 왕을 섬기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미스바에서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대할 테니, 당신들은 유다의 어느 성읍에서든지, 사람들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저장하며 살 수 있도록 잘 도우라고 합니다.

(11-12) 모압과 암몬 자손 종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 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래서 본래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모압과 암몬, 에돔 지역에서 살던 유대 백성들까지 돌아와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모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바른 지도력과 결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마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충분히 출세 지향적인 길을 걸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의 온 가문은 물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실한 믿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저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

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그가 출세지향적인 길을 걸어서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총독 그다랴의 암살(13-16절)

13-16절은 암몬왕과 결탁한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불신하는 그다랴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결국 그다랴는 41장에서 암살됩니다.

(13-16)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흠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참 아쉽게 여겨집니다. 그다라는 상황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사람들과 그 나라 왕을 섬겨야 함을 알았고, 자신은 앞선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을 비축해 두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정보, 즉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자객으로 보내어 그의 목숨을 노린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요하난은 그다라 총독에게 자신이 그 자객의 목숨을 건어오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라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이라는 말이 틀린 것이라며 무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다라는 죽임을 당하고, 유다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는 혼자만의 몸이 아닙니다. 자신의 등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함께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일에 그다라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전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어둡게만 보여도, 또 우리의 삶이 깊은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론으로 가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한 선택이었습니다. 포로됨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살아도 자신의 죽을 때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귀국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바빌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고, 바빌론 왕궁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어떤 사람은 지지를, 어떤 사람은 야유를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세 사람을 심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역사를 펼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인생이 쉬운 때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어둡고, 질곡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침마다 들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경건의 생활화 생활의 경건화를 이루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분별하며,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자신의 안일함 보다는 백성을 생각하는 예레미야의 믿음의 분별력과 결단력 그리고 그 다랴처럼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자기 백성의 생계를 걱정하는 헌신된 삶에 대해서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범죄와 불순종의 연속이 아니라 신실함과 순종의 연속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경건의 생활화 생활의 경건화를 실천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진리를 꽃피우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빌로니아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유다가 재난(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적 앞에 당신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 당신의 삶에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면, 동일한 이유로 인함은 아닙니까?
2.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론으로 가서 함께 살자는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거절하고, 유다 땅, 미스바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 그다라는 유대에 세워진 첫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 찾아온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각자가 해야 할 것을 잘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4.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44

두려워함이었더라

예레미야 41:1-18

1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써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2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죽였고 3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4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5 그 때에 사람 팔십 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6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져 하더라 7 그들이 성을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8 그 중의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9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10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11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12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 가에서 그를 만나매 13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14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15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꾀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16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17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18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앗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0년여 후인 BC 586년에 남유다 역시 세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읍은 파괴되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앗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이방민족에게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 예레미

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렘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뿐 아니라,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즉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남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130여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주어졌음에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악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변 이방 국가에 자국의 운명을 의탁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인류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륙 진출의 교두보이자, 교통의 요충지, 상업의 교역로로서, 고대 근동 국가 세력의 각축장이자 완충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같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이스라엘은 근동의 여러 나라들과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문명의 충돌과 대륙간 강대국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센 파도

앞에서 이스라엘은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몰아치는 거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이 사지에 몰아넣어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했던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막4:40)라고 나무라셨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발표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최대 피해국 5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미.중.러.일 등 강대국의 입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가 점점 더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계, 제계, 교육계, 종교계 모두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만 외치면서 대립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위기의 이 순간을 현명하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 그다랴, 요한난 모두 이스

라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주일에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시간동안 믹서기의 음향 볼륨을 움직이고, 컴퓨터에서 자막을 넘기고, 카메라 앵글을 잡는 모든 행동을 내가 아닌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실 때, 봉사자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의탁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속에 흘러가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하

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비전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스마엘 (1-10절)

1절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1)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니 당연히 다윗 왕가 사람으로 당시 신분은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은 뼈 속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해마지 않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족이자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오자, 그다라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참모들을 불러 이스마엘을 환대하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자신을 믿고 초대해준 그다라를 식사 도중에 살해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다 참모들까지 죽였습니다. 게다가 총독 관저를 지키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습니다. 이들이 지나도록 그다라는 물론 참모들과 바벨론 병사들이 살해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암살 계획을 준비했고, 실행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가 가진 정보력은 대단했습니다. 북이

스라엘에서 팔십 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와의 성전으로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5). 이스마엘은 슬픔을 가장하고 그들을 미스바로 유인해서 미스바 성읍 중앙에서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열 명은 자신들이 밭에 감추어둔 곡물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 일행이 미스바 성읍에서 자행했던 일을 본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9)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죽이고서 그 시체를 모두 던져 넣은 물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저지하려고 파 놓은 물웅덩이인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곳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파놓은 참호이니 규모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참호를 송장으로 가득 채웠으니, 본문에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처참한 도륙의 현장을 목격한 미스바에 있던 백성들은 겁에 질려 이스마엘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백성들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고, 그다라는 물론 동족인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륙하는 악의 화신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마엘은 민족주의 자였을까요? 애국자였을까요?

존 루카스(Lukacs, John)는 저서 “히틀러와 처칠의 격투”에서 민족주의자와 애국자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히틀러가 민족주의자였다면 처칠은 애국자였다. 민족주의자는 민족의 적에 대한 증오심이 주류이지만, 애국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주류이다.”

이스마엘이 그다라 총독을 살해한 것은 그가 ‘민족주의자’이었기에 이방국의 지배를 받는 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가 ‘민족주의자’였다면 그는 암몬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은 사사 시대부터 끊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조공국가가 되었지만, 틈만 나면 타국과 동맹하여 반기를 들었다가 정벌당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럼 그가 애국자였기 때문에 암몬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라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그는 악의 화신으로 변했습니다.

불교 속담 중에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도 안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세상 단맛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마치 불만 보면 달려가는 불쌍한 불나방이 되고 맙니다. 특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복해야 할 목회자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자신의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이스마엘과 같이 견잡을 수 없이 악의 화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 그다라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다라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지했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유다의 회복을 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의탁한 신실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암살하려한다는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하난의 말을 새겨듣지 않은 결과, 그는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물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에 미루어 볼 때, 그는 요하난의 이야기에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한번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했다면, 그의 인생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는 변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다스리고 있는 미스바에는 예레미야 선지가가 와있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다면, 미스바의 참혹한 도륙의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삶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역자를 찾아가서 상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역자는 신앙적인 상담을 해줄 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 교역자인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전문가는 교역자가 아니라 성도님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설사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정반대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인물, 요한난 (11-18)

요한난이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라에게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를 알렸다는 사실에서 요한난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12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1-12) 가례아의 아들 요한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 가에서 그를 만나매

요한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살해하고 미스바에서 행한 일들은 듣고 분개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달려갔습니다. 미스바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를 듣고 이스마엘과 싸우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달려간 그의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가 그다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그는 그다랴를 떠나서는 안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알아낸 정보인데 그다랴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설사 그다랴가 자신의 충언을 무시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다랴의 곁에서 그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는 사월이었고, 그다랴 암살 사건은 1절에 의하면 일곱째 달에 벌어졌으니,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지 불과 두 달에서 세 달 정도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요하난이 최소 두달에서 세 달만 그다랴 곁에서 보좌했다면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 자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라면,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킬 줄 알고,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다랴를 살해하고 미스바의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는 이스마엘을 쫓아간 요하난과 용사들은 기브온 물가에서 한바탕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이 열 사

람이 아니라,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마엘은 요하난에게 패하여 암몬으로 도망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요하난의 다음 행적에 대해 “(16b-17)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헬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라고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믿는 도끼에게 발등 찍힌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본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8)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
두려워함이었다라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다라를 죽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미스바가 아닌 애굽으로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킨 것도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운 세상 권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

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촌부의 이새를 택하셨고, 이새의 아들들 중 가장 어린 다윗을 들어 가장 강한 사울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마엘, 그다랴 그리고 요한만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은 결과, 한 사람은 극악무도한 악의 화신으로 변모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나약한 지도자로 생을 마감했고, 그나마 기대를 했던 사람조차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곳 양화진묘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비하면 교회는 양적으로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계에도 경제계에도 교육계에도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더 암울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구역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를 통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인해 주님의 다스림을 기쁨을 받아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달란트와 시간과 재물 역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의탁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경건함이 회복되며, 경건한 시간들로 채워가는 일상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사회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마엘에 대한 나의 평가는?
3. 하나님의 백성인 느다냐는 무엇을 소홀히 했나요?
4. 하나님의 백성인 요하난이 흔들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5.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했나요?

묵상한 날 :

45

여호와께 기도하고

예레미야 42:1-22

1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와 2 선지자 예레
 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3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
 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
 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라 5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
 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
 이 되시옵소서 6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
 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
 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라 7 십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8 그가 가레
 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
 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9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10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

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
 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
 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
 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3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
 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
 하리라 하며 14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
 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
 굶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5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
 하면 16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
 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17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은 자
 없으리라 18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
 와 치욕 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
 도다 19 유다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
 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20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
 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

음을 속였느니라 21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지난 며칠 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남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렘39:2).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 자신의 자녀들과 나라의 귀족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아야 했고 자신은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끌려갔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과 이들을 이끌 소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 ‘그다랴’를 임명하여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성읍들을 맡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지배국의 왕에 의해 세워진 총독 ‘그다랴’ 이외 일부 지도층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총독 ‘그다랴’의 측근들이 있었고 특이하게도 군대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남 유다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난세를 이기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국권을 상실

하였으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불안정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웠지만 유다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라를 살해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라의 측근들과 심지어 그다라와 함께 있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였습니다.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2장은 이 사건 이후의 전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탄원과 기도요청

(1-2)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가 사람들과 힘을 모아 총독 그다라를 죽였던 이스마엘 세력을 암몬으로 쫓아내었고, 사태 수습을 위해 사람들과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간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보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

청이 3절입니다.

(3)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38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과는 달리 현 사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4절 후반절에서, 그들에게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하난의 사람들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5-6)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서 응답하시면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하난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이스마엘 사태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과 시드기야 왕가의 비참한 장면과 귀족들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았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쾌락과 출세를 위해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지를 알았습니다.

기도응답

예루살렘이 무너지듯이 최근 하는 일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혹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고민이 있어 견디기 버거운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길게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됩니까? 요하난의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하난의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10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습니다.

(10-12)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왔던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태로 인해 바벨론 왕으로부터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든지 개인의 일든지 무엇을 할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처해진 상황에서 이성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상황은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과 바벨론 군사들을 유다 사람들이 죽였으니 자신들이 살인자가 아니라며 사건의 경위를 해명하더라도 쉽게 믿어줄 리가 없을 것이고 설령 믿어주더라도 연대 책임을 물어 엄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각한 사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바벨론 왕도 이들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면 상황이 나쁘거나 절망적이더라도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입니다. 요한안의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태로 닥칠 환난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거기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16)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할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은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애굽의 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예레미야 4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애굽왕 바로노고가 주전 605년에는 유프라테스 강 인근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가서 앗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쟁을 했습니다. 비록 애굽이 패하기는 하였지만 애굽이 망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전쟁으로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애굽은 갈그미스 전쟁에 패한

후 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영토이었던 팔레스틴 지역의 주도권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바벨론이 애굽의 영토를 쉽게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를 요하난의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면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 가면 바벨론의 칼이 애굽 땅에 미칠 것이고 칼이 아니면 기근이나 전염병으로(17,22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칼이 두려워 안전하게 생각되는 곳으로 피신해도 바벨론의 칼이 미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괴로운 것을 피해 다른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휴학을 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는 것, 그리고 사람이 싫어 사람을 피하고 일이 싫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장소를 옮기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도응답 후

요하난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길을 택하면 이렇게 되고, 저 길을 택하

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중보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 받았습시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목소리에도 순종하겠다고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의 땅,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실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중보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43장에 있습니다. 42장 20절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이들의 거짓된 반응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입니다.

(20)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요한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목에 힘을 주어 결단하지만 막상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응답을 받으면, ‘그건 아니라’고 말하며 달리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합니까? 손해 보기 싫고 자존심 굽히기 싫고, 의의 길 고난의 길을 가기 싫은 것은 아닙니까? 믿음은 처해진 상황에 이성이나 경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자존심 버리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입니다.

이 시대 정치 외교 경제 사정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을 위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않는다면 요하난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얽혀있는 삶의 실뭉치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며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긴급한 일에 요하난의 사람들처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고 이미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옵소서. 인생사용설명서인 성경말씀을 읽고 답을 얻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경건의 본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보여 줌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처해진 상황에서 이성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마엘 사태처럼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삶의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2. 이스마엘 사태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 명쾌한 답을 줄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하난의 사람들처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는 지를 성찰해 봅시다.
3. 예레미야 38장 14~18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문을 듣고도 따르지 않아 예레미야 39장 2~10절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요하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 응답받은 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4. 요하난이 함께 한 사람들과 잘 지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요하난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5. 기도의 응답대로(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43:1-13

1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2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4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5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6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 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7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8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들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10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

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11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12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 곳을 떠날 것이며 13 그가 또 애굽 땅 벤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무시한 애굽이주 강행(1-7절)

예레미야 39-45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로부터 몇 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과 예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42-43장은 유다 백성들이 유다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애굽으로의 이주를 강행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쳤다고 하는 것

은 42:7-22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난 후에, 남은 사람들인 요하난을 비롯하여 유다의 높고 낮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실 것이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이 바빌로니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애굽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며, 거기에서도 칼(전쟁)에 죽거나, 기근(굶어)에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화려하고 강하게 보이는 세상 나라의 힘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함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우리 성경에는 ‘모든 백성에게’와 ‘모든 말씀’에 ‘모든’이 2번만 나오지만, 히브리어성경에는 ‘모든’이 3번이 나옵니다. 1절 중간에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모든’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빠짐이 없이 다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듣지 못했어.”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 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전하기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에 꼭 순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고 하며 기도를 부탁했던 백성들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2)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는 42장에서는 ‘여사냐’로 나옵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갖는 것이 드물지 않은 일이었기에, ‘아사랴’와 ‘여사냐’는 동일인물입니다. ‘아사랴’가 어떤 인물이었든지 간에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자격인 ‘요하난’은 총독 그다라에게 이스마엘의 암살계획을 알려주기도 했고, 미스바에 남아 있던 백성들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41:11-15). 그에게는 선한 마음도 있었고,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든 그렇지 않은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과 다른 내용이 전해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매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것이면, 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거울로 비추어 주면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씻겠다고 말하고는, 정작 거울에 비친 모습이 얼룩 투성이인 것을 보고서는 세수를 한 것이 아니라, 거울이 틀렸다면 그 거울을 깨뜨리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3)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에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부추김을 당해서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추기다’는 다른 사람을 악하고 나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충동질을 하다는 의미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등진 길을 갔던 것이 왕비 이세벨에게 부추김을 당했기 때문이며, 다윗이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암살을 했는데, 그 일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 교묘합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릅니다. 그것을 교양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란 단어를 1번 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성경에는 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우리를 죽이며 바벨론으로 우리를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요한난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애굽으로 향했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5-6) 가레아의 아들 요한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 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을 향해 떠났던 유다 백성들은 귀족들과 군인들, 남녀 노소로 이루어진 일반 사람들 등 다양하였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바빌로니아의 침략으로 외국으로 쫓겨났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총독 그다라가 지도자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 기름을 비축하며 살라고 권면했을 때, 모압, 암몬, 에돔 등지로 쫓겨났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40:11-12). 그런데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스스로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유다 땅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7) 애굽 땅에 들어가 다버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애굽으로 향했던 유다 백성들은 ‘데바네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동편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충지이었으며, 곡창지대이니 무엇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함락 예언(8-13절)

8-13절은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 줄 것이라 생각하고 떠났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 애굽이 함락당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8)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고대 중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은 바알신이 주관하고, 바빌로니아는 마르둑이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특정한 지역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 신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바빌로니아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는 그 지역의 신인 마르둑을 섬기거나, 가나안에서 섬겼던 바알신과 바빌로니아 신인 마르둑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은 그러한 생각에 정문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의 다바네스에 있는 예레미야 선

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애굽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9-10)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왕의 궁전 대문 앞 광장에다 큰 돌들을 묻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후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왕이 그 돌 위에다가 자신의 보좌를 둘 것이며, 왕의 장막이 쳐 질 것이라고 합니다. 즉 바빌로니아에게 애굽이 함락당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거의 대부분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즉,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

이를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1)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친다’고 3중대구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것은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애굽에서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의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어떤 특정한 나라나 도시, 장소가 참된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초강대국의 최고의 도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오직 하늘 위에서만 내려옵니다. 옆에서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2-13)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 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벤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애굽의 신전들이 초토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태양
의 집’이라는 의미의 ‘벤세메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부서지
고 말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전쟁은 각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의 대리전과도 같았기 때문에, 애굽의 신전들이 초토화 된
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주권이 바빌로니아로 온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것은 허무한 이상숭배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그
들은 애굽으로 가는 세속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더 큰 비극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경건의 생활화와 생활의 경건화를 통해
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속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 땅, 다바네
스에서도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임
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
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순종 하겠노라 다짐했음에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나타나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본래 원했던 대로 애굽으로 이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다르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노라고 수도 없이 다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더 위험하고,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참된 평화가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참 평화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그 평화는 옆에서 오지 않고 위에서 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속의 길, 출세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은총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자신들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낭패를 겪은 일은 없습니까? 그 때에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2.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 땅, 다바네스에도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3.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이주했지만, 그곳도 다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음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또 참된 평화가 옆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4. 당신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47

남은 유다의 결국

예레미야 44:1-30

1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므돔과 다바네스와 뇨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3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4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6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7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8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 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9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

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10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
 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1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
 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
 며 12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
 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
 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람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13 내가 예루
 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14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 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
 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
 셨느니라 15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
 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 네가 여호와의 이
 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7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
 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
 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 우
 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
 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19 여인
 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

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20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21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22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람과 저춥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23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24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26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27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28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29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를 멸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30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

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의 대상(1)

유다의 결국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두 눈이 뽑힌 체 바빌론의 포로 된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그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42:10-13). 그러나 그들은 지체 없이 애굽 땅으로 이주했고(43:2), 이제 하나님의 칼끝은 그들을 향합니다.

(1)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므돔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애굽의 지명을 나열함을 통해 하나님의 칼끝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킵니다. 애굽 땅의 중심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동편 경계 부근에는 홍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므돔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으로 홍해 서쪽 수에즈 부근입니다. 다바네스는 나일강 하류에 형성된 삼각주 동편 지역으로 므돔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놉은 나일강 서쪽 지역으로 므돔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바드로스 지역은 특정 성읍이 아닌 나일강

상류 부분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므돌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의 동서남북에 광범위하게 흩어졌어도 하나님의 낫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에 흩어진 유다 사람들을 향한 즉각적인 심판에 앞서 예레미야를 통해 기회를 주십니다.

임한 심판의 결과와 원인(2-6)

(2)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애굽에 흩어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는 내린 재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과거에 목격했던 심판의 결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야기했던 원인을 교훈하십니다.

(3-5)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참혹한 심판이 야기된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표면적 우상숭배, 이면적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가증한 일(우상숭배)을 멈출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된 불순종은 피치 못할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났던 심판의 결과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이제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임할 심판의 결과와 원인(7-14)

(7-8)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대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 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애굽으로 이주한 이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이전과 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며 거듭된 선지자의 훈계조차 멸시함에 따른 참혹한 결과를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복

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사 42:6 ; 49:6). 그러나 지금의 모습에 이어질 장치는 저주와 수치 거리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어 심판의 도구(방법)와 그 결과를 말씀하십시오.

(13-14)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곧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인해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살아남은 자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다 더 주목해야할 표현은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입니다. 하나님 심판은 결코 지리(물리)적 제약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심판의 원인을 똑바로 해석하지 못한 채, 애굽으로 이동했던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된 일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사람들이 회개가 아닌, 예레미야에게 확고한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남은 자들의 의사 표명(15-19)

(15)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을 분명히 기록함과 같이, 여기서는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의 의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6-17a)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눈을 비비고,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답이었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드시 선조들과 같이 계속해서 더욱 우상을 숭배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어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17b-18)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판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음을 목 놓아 전하며,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 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남은 자들은 지금까지 이어

진 재난의 원인이 전과 같이 우상을 잘 숭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에 빠진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과 원인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심판의 결과를 선포합니다.

애굽의 남은 유다 사람들의 최후(20-30)

(27)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30)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복을 바라던 애굽 땅의 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은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심 같이, 애굽의 호브라 왕(바로)을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전 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집어 기록합니다.

본문 2a, 7a, 11a, 25a, 30a 절에 반복해서 기록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거듭 전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폐허가 된 유다 성읍, 황무지 위에 선 유다의 남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애굽의 기름진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의 기름진 땅 위에 선 유다의 남은 자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보다 교만한 지도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으로 이주했다 해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과거의 심판을 언급하며, 미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반복된 죄악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 지식이나 재물, 건강이나 자식 등.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높이 숭배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경건의 생활화 생활의 경건화를 실천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때, 우리 삶의 결국은 심판이 아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했으면서도 남겨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지도자들을 쫓아 애굽 땅으로 이주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거듭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리석게만 보이는 그 남은 백성의 모습이 오늘따라 삶의 자리에 선 제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입으로는 경건의 생활화 생활의 경건화를 이야기 하지만, 삶의 자리 만 연한 우상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 오직 주님의 말씀 만을, 주님 만을 좇아 함께 지어저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유다의 남은 자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헤아려 봅시다.
3. 때때로 삶의 중심에 자리하는 우상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4. 최근 내게 거듭 전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와 같이 전하시는 이유를 헤아려 봅시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

예레미야 45:1-5

1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 때에 선 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2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4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러주는 대로(1)

45장은 1-5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예레미야의 대필자인 바룩의 개인적인 고뇌와 고통,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본 절은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나라 그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임박하였던 여호야김 4년(B.C. 605년)에,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에 대한 모든 예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사실 예레미야 36:4 이후에 배치를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유다 멸망기사 이후에 배치한 것은,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시대까지의 받은 예언과 그 이후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받은 모든 예언도 바룩의 대필을 통하여 기록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 후반절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나라.”에서 바룩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기록하려면 일단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말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바룩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책에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3:9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역대상 10:13-14에 “사울이....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묻는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

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묻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책에 소중히 기록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한 절, 한 절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룩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이야기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2-3)

여호야김 통치시대는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불순종이 달아올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였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유다 동족을 보면서 낙심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말씀으로 거룩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2-3)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기서 바룩은 고통에 슬픔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고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크오비’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모두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룩이 고통에 속에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역적 측면입니다. 당시 바룩은 조국 유다에 임할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고(36:1)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36:5-8)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거짓예언으로 반박하고,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우기조차 했습니다(36:22-23). 이처럼 말씀을 받아 적고, 대언하는 일이 멸시받으며 모독을 받는 상황에서 그는 애 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둘째는 현실적 측면입니다. 바룩의 할아버지 마세야(32:12)는 예루살렘의 성읍을 관장하는 관료였습니다. 어찌 보면 바룩은 그의 가문을 따라 관료가 되었거나 아니면, 현재의 삶보다는 괴롭지 않게 살아갈 인생이었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와 영적으로 유다를 회복하기 위한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응했으면 보람이라도 있겠지만, 그가 경험한 현실은 조소와 멸시, 냉대였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여러 가지 고뇌와 시련이 올 수 있으며, 도중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며, 거룩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써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족에 대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치 않고, 결국 파멸에 이를 동족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슬픔입니다. 신앙인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필요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와 필요에도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이를 채우기 위해 한 가지라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신 것은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넓은 마음이란 <관용과 포용>입니다. 관용과 포용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더 생각하고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란, 다름 아닌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솔로몬의 지혜를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4-5)

하나님께서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이 온 세계에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4-5절입니다.

(4-5)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바룩이 도모했던 <큰 일>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어떤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만류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직면한 유다에는,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룩이 해야 할 일은 예레미야의 조력자와 대필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재난을 내리실 것이지만, 유독 바룩만은 그 재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생명을 노략물을 주듯’이라는 말은 당시 사회에서 문학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던 속담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30:16, 38:2, 39:18, 49:32'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면 병사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물품들을 약탈해가는데 이것이 노략물 즉 전리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굳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죄악에 빠진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서 공의를 행했던 바룩을, 최후의 승리자로 서게 하실 것이며 그 대가로 노략물을 주듯,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최악의 심판으로 죽음에 처하지만, 바룩은 믿음으로 생명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또한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기억해주지 않을 지라도, 우린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더욱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절 말미에 “네가 가는 모든 것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회복시키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거룩한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서, 더욱 은혜가 넘치는 매일의 시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대언했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과 교회와 그 외 삶의 여러 곳곳에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 보다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지친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는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분별하여,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새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2.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과 관용(포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봅시다.
3. 삶에서 말과 행동에 분별이 없어,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4. 주로 상대방을 지적하는 편입니까? 포용(관용)하는 편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포용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예레미야 46:1-28

1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3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4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이나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6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꺾이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7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8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9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10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 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 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11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12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

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13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말씀이라 14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므딕들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15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나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16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17 그들이 그 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18 만군의 여호와와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 들 중의 다불 같이, 해변의 갈멜 같이 오리라 19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높이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20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21 또 그 중의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별받는 때가 왔음이라 22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별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2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짝을 것이라 24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불임을 당하리도다 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멸할 것이라 26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7 내 종 야굽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굽

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28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흘렸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갈그미스 전투 패배 예언(1-12)

선지서 예레미야는 모두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을 보여주는 서론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장인 52장은 예루살렘 함락과 바빌론에 포로됨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부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2-51장이 본론입니다. 이 본론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5장은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는데, 크게 2가지를 지적합니다. ‘우상숭배’와 ‘언약 배반(불순종)’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26-45장은 ‘전기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서 선지자의 삶이 가장 많이 드러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46-51장은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사야와 에스겔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

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숫자가 10개인 것은 10이 만수(滿數)이기 때문에, 그 10개의 나라가 온 세상을 대표합니다. 오늘 본문 46장은 애굽에 대한 말씀인데, 1-12절은 애굽의 왕 바로노고가 갈그미스 전투(Battle of Carchemish)에서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를 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테 강 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노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방나라 10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다가 바빌로니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노고는 블레셋의 도시 가사와 아스글론을 점령하고, 므깃도에서 요시아왕을 죽이고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이 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친애굽파인 ‘엘리아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왕위에 등극시켰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조공을 바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등극하지 넷째 해는 B.C. 605년인데, 그 때에 전통 강국인 애굽과 신흥 강국인 바빌로니아가 중동지역의 패권을 두고 충돌했는데, 그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한 바빌로니아는 중동의 패권자가 되었고, 패전한 애굽은 중동에서 그 지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영화는 그 이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빌로니아는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많은 포로를 잡아갔는데(3차 중 1차 침략), 그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4)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 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애굽의 장교들이 외치는 말인데, 3절은 주로 보병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작은 방패는 무게 약 1.7kg(150세겔)으로 상체를 보호하는데 사용되었고, 큰 방패는 무게 약, 6.84kg(600세겔)로 전신을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4절은 기(마)병에게 내리는 명령인데, ‘지우라’, ‘타라’, ‘나서라’, ‘갈라’, ‘입으라’ 등 명령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며, 전쟁에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5-6)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이나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 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자신만만한 애굽 군대가 참패를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패배가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5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라다’, ‘물러가다’, ‘패하다’, ‘도망하다’, ‘뒤를 돌아보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이 빠른 사람도 다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의 군대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7-8)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애굽 군대의 기세를 범람하는 나일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길이가 6,6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강물이 범람하여 만든 삼각주는 세계 최대이고,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애굽의 군대는 자신만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12)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 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애굽이 바빌로니아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는 날을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고 하십니다. 그 때에 길르앗으로 올라가 가서 유향을 가져오라고 하시지만,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길르앗 유향은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그 것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애굽이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의 전 역사에 있어서 최고, 최대의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 이전에 애굽은 막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던, 그 이후는 평범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애굽 함락 예언(13-28)

13-28절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왕이 애굽 본토를 침입해서 많은 성읍들을 약탈하여 정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4)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므딕들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므딕’과 ‘놉’은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였고, ‘다바네스’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몰려갔던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칼(바빌로니아의 무력)이 들어와 이 도시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심판당할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

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는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애굽이나 바빌로니아와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땅이 꺼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5-17)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나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 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장사들’이 쓰러졌다고 하는데, ‘장사’를 어떤 성경은 ‘용사(warrior)’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성경은 ‘힘센 황소’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수호신 중에 하나인 ‘아피스(Apis)’를 의미하는데 그 형상이 황소였습니다. 즉 애굽의 수호신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기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애굽이 무너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 것을 의미

하는 말입니다. 애굽 온 땅에 시신 투성이입니다. 그것만 해도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들 위로 또 다른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슬픔이나 고통이 너무 크면 눈물도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아연실색(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람)과 망연자실(정신을 잃고 어리둥절해 함)을 합친 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애굽이 바빌로니아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한 용병으로 왔던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게로, 고향을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바빌로니아를 이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패권자가 애굽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병을 썼습니다. 용병을 쓰는 것은 자국민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가’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4-17절이 무너지는 애굽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18-24절도 무너지는 애굽을 표현 방법만 다르게 하여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8)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불 같이, 해변의 갈멜 같이 오리라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두 나라, 바빌로니아와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빌로니아나 애굽이 강하게 보여도, 영원히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전쟁을 많이 해야 했던 모세나 여호수아, 사사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서 또 다른 부인에게 놀림을 받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했던 ‘한나’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처음 8권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사무엘상에 처음 나온 후에, 주로 선지서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비록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져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26)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한 번 애굽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해도 유다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지리적으로 천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가로막아주고 있고, 또 나일강도 천연적인 지역 경계가 되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애

굽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마치 ‘미국이나 중국이 멸망할 것이다’와 같게 들렸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왕, 바로, 그리고 그 들을 따르는 신하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노의 아몬’입니다. ‘노’는 도시 이름이고, ‘아몬’은 신의 이름입니다. 고대 그리스 소설 <오이디푸스왕>에서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신탁을 피해 고린도를 떠나서 테베(Thebe)로 향했는데, ‘노’의 그리스 지명이 ‘테베’입니다. 그리고 ‘아몬’은 애굽의 주신(主神)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의 아몬’의 멸망은 ‘애굽의 멸망’과 동의어입니다.

(27-28)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 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흘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7절과 28절이 비슷한 내용인데, 나라가 망하여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스라엘(유다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내 종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주인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임지신

다는 말씀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사실은 하나님께서 져 주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야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애굽까지 간 것은 시대적 상황을 믿음으로 읽는 바른 분별력이 없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우상과 세속적 가치관을 목적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애굽은 자신들의 국방력을 믿었고, 지형적으로도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나라를 지켜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신들은 무기력한 우상이었고, 용병까지 동원한 국방력은 허약하기 짝이 없어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이 이리하였음에도,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여 많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커 보이는 것, 화려하게 보이는 것, 높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세속적 가치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에 순종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애굽은 스스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로도 안전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빌로니아의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혹 당신의 삶에서 안전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당한 때는 없습니까?
2.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안전한 땅이라고 굳게 믿고 거기로 이주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다가 어려운 상황을 겪은 일은 없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유다 백성들에게 ‘내 종 야곱아’라고 부르시며, 회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형편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4. 애굽으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호와와 칼이여

예레미야 47:1-7

1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와의 말씀이라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3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
 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뻐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
 지 못하리니 4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
 는 바 도와 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
 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5 가사는 대머리가 되
 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6 오호라 여호와와 칼이여 네가 언
 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설지어다 7 여호와께
 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
 려 하여 그가 명령하셨느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7장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예언 중 애굽에 이
 어 두 번째로 블레셋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기록되어 있지만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 민족의 뿌리를 살펴보면 그들은 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갑돌 섬(그레데, 크레타 섬)에서 이주시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7) 여호와와 말씀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이주시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미워하시거나 처음부터 심판의 대상으로 확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언약궤의 이동경로를 따라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벌주셨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징표까지 주셨지만 블레셋 민족이 뉘우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의로운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돴에 넘겼음이라

블레셋은 자신들의 힘을 바탕으로 주위 약한 민족, 부락민을 사로잡아 애돴에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을 도구화한 전형적인 악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민족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도구화하고 물질이 사람보다 앞선 블레셋의 문화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였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와 인신매매를 통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블레셋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제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1)

(1)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먼저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의 예언이 임한 시기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공은 46장에 언급된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Battle of Carchemish) 이전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블레셋을 침공한 적은 여러 번이지만 갈그미스 전투 때에 많은 전력과 블레셋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 국의 전쟁은 미묘하게 서로 얽히고 얽혀서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

니다.

심판의 엄중함과 두려움(2-3)

블레셋에 임한 심판은 마치 물결치는 시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블레셋의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온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마치 강한 물줄기가 사람을 휩쓸어 가듯이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공격이 될 것을 알려줍니다. 아모스는 그 심판을 불을 붙이신 것으로 묘사했는데 이번에는 물로 공격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물과 불 두 가지 심판의 모습이 알려주는 것은 ‘태워버림, 휩쓸어감’ 곧 이 심판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은 크고 두려울 것입니다.

(3)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뭉이 풀려서 자기의 재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부모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녀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게 임하는지 그 공격의 소리 곧 말발굽 소리와 병거 바퀴 소리로 인해서 아버지의 손뱀이 풀려 자기 자녀조차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는데 그 증상은 ‘정서적 마비, 악몽, 환청’ 등입니다. 전쟁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포감을 줌과 동시에 우리 마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반대로 블레셋이 약한 민족들에게 주었을 공포를 생각해 봅니다. 강한 힘으로 마을을 공격해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블레셋은 자신들이 했던 그대로 힘에 짓눌려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뿌린대로 거두도록 심판을 행하십니다.

블레셋의 고립과 뿌리뽑힘(4)

(4)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 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에 거주하며 무역의 거점이 되었던 나라이기에 동일하게 해변에 위치하였던 두로와 시돈과 친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바벨론의 공격은 그들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강력하여 블레셋은 고

립 속에 패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의 부요한 재물도 블레셋을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인생 고난의 때에 내가 믿고 있던 사람, 물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뿌리까지 뽑아낼 만큼 엄중하여 블레셋 현재 거주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주하기 전 살고 있던 갑돌 섬에까지 그 심판이 임하여 그 백성을 유린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포로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에돔에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블레셋 족속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블레셋의 통곡(5-6)

(5)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클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 초상이 나서 그들의 장례예법대로 사람들이 슬피 울며 머리를 삭발하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뽑혀 버린 블레셋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설지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멈추고 자신들 위에 안식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탄식입니다. 블레셋은 철기문화가 발달하여 사울 왕 때에 철로 만든 칼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게 하고 팔아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칼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부르는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들을 탄식하게 했던 블레셋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심판의 칼이 칼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7절입니다.

(7)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오래 참으심이라는 사랑의 칼집에 담겨 쉽게 아무 때나 빼서 휘둘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나온 심판의 칼날은 그 뜻하신 심판을 완전히 행하시기 전까지 절대 그 칼집에 도로 꽂히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향해 뿔뿔히 찢긴 칼날도 잠잠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따라 블레셋

본토부터 갑돌 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심판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역사에서 사라진 민족이 되었고 현재 팔레스타인은 그 이름이 블레셋에서 왔지만 실제 이 당시 블레셋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땅 이름으로만 기억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유명무실’ 이름만 남고 실재하지 않는 민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영원한 챔피언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철기문화를 앞서가며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블레셋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유적으로만 그 발자취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지금도 한 나라, 공동체, 개인이 블레셋처럼 교만에 취해서 칼을 휘두르며 나의 유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피를 짜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고 있다면 그 칼은 ‘여호와의 심판의 칼’을 부르는 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라질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 볼 때입니다. 지금 나의 칼날이 약자를 향하고 있다면 그 칼날을 바꾸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향하여 겨누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센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그 힘과 권력으로 약자를 섬기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의 논리를 따라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며 약자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사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힘의 논리의 강물이 흐르는 세상 속에 역류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틀을 깨뜨리시고 진리와 생명의 틀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다 사라지는 유명무실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잊혀 지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에 동참하는 무명유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사무엘상 5,6장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자신을 어떻게 참 신으로 나타내셨는지 살펴보면서 그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완악함을 보며 혹시나 내 안에 그런 완악함은 없는지 묵상해 봅시다.
2. 힘의 논리로 다른 민족을 노예로 팔았던 블레셋이 오늘 심판대에 올라서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을 보면서 혹시나 나는 내가 가진 권력으로 누군가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3. 오늘 블레셋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다시 살펴보면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기억하고 내 삶에 버려야 할 죄악은 없는지 분별하며 묵상해 봅시다.
4.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블레셋의 모습을 보며 내가 추구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세상의 가치는 아닌지 돌아보며 진리와 생명의 틀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광야의 노간주나무

예레미야 48:1-25

1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2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 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 하게 하자 하는도다 맛벤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카리라 3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4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5 그들이 루히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6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7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8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9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10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11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

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13 이스라엘 집이 베엘을 의뢰하
 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
 다 14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15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
 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 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
 하니 16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17 그의 사
 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
 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18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과
 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19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20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
 서 부르짖으며 아르는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21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흘론과 야사와 메비앗과 22 디본과 느보와
 벤디불라디임과 23 기라디임과 벤기물과 벤므온과 24 그리웃과 보스리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25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
 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1-10)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이외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8장은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 3번째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은 이사야

서와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경 동편, 즉 사해 동편에 위치한 나라이며 르우벤 지파가 정착했던 땅의 일부를 빼앗아 영토로 편입하였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모스는 몰록, 몰렉, 밀감, 밀곰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모스에게 제사할 때 사람을 제물로 드렸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의 멸망 역사 기록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확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순간에 인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모압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것이며 그 예언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1)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온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의 주요 성읍들이 점령되고 파괴되어 유린과 수치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압의 성읍들은 1절의 느보, 기라다임, 미스갑, 2절의 헤스본, 맛멘, 3절과 5절의 호로나임, 5절 루히입니다. 이 성읍들에서 울려질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찬송 소리가 사라짐’, 3절의 ‘부르짖는 소리’, 4절의 ‘어린이들의 부르짖음’ 5절의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음’과 ‘내

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입니다.

모압의 성읍들이 외세의 침공으로 유린과 수치를 당하니 6절에는 '도망하라', 9절에는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9절 후반절처럼 성읍들이 황폐하여 더 이상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의 내전이든 외세 침략을 받아 전쟁이 발발하든 피난을 가지 않고 살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압은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도망하여 자신의 생명을 겨우 구하더라도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침엽수의 일종이며 떨기나무라고도 불리는 노간주나무는 황량한 사막 땅에 있을 때 처량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있는 노간주나무를 보면 척박한 땅에 살아 있는 것이 놀라울 정도이지만, 생기가 있어 보이거나 기세가 있어 보이는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피난을 간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연명하더라도 이런 메마른 사막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 모압의 죄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7절입니다.

(7)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의 죄는 신뢰할 자를 신뢰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습니

다. 모압은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자신이 세운 공적, 해 놓은 성과 등의 업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적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업적이나 경력을 쌓고 그에 따른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며 자랑하고 그것을 다른 업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업적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자는 정복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를 무한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사투(死鬪)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고가 되길 원하고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와 1등을 추구하지 않고 그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업적은 하루아침에 다른 경쟁자에 의해 정복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가 내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과 소유에 대한 신뢰는 곧 우상 숭배입니다. 7절 후반절은 그모스를 섬긴 사람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업적과 보물을 신뢰함이 우상숭배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업적과 소유를 신뢰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10)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게으르다면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게 됩니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 시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무고히 살인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칼은 들지 않았지만 지위와 돈의 힘으로 약한 사람을 누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술을 옮겨 담는(11-25)

(11)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과거 모압이 평온할 때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평온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압 역시 술찌끼가 아래 있고 위에 술이 투명하게 있는 것처럼 평온할 때가 있었습니다. 얇은 하천에 흙이나 퇴적물이 가리앉아 맑고 고요할 때처럼 모압이 평화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요한 술병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모압의 술병이 기울어지고 깨어짐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대는 끝이 날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 이스라엘 집이 벤엘을 의뢰하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벤엘’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벤엘은 지명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면서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습니다(왕상 12:25~13:34). 벤엘이 사악한 집을 뜻하는 벤아웬으로 변질되

고 말았습니다. 모압 역시 사악한 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사악한 집으로 변질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도 그모스 우상을 섬기듯이 사악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 믿음의 가정 안이나 가정 밖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집, 벤엘의 본질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압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모스를 섬겼으니 그 사악함으로 수치를 당하고 황폐화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15절입니다.

(15)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 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성읍들이 황폐화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15절에서 재난과 고난이 닥칠 것이고, 17절에서는 강한 막대기와 아름다운 막대기가 부러짐같이 모압이 파멸될 것을 말씀합니다. 모압은 고원지대에 위치했었기에 외세의 침략을 받기 쉽지 않았습다. 하지만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요새가 정복당하여 깨뜨려지고 골짜기나 아르는 강가의 성읍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정복할 때 먼저 중요한 성읍들을 공격합니다. 중요한 성읍들은 외세의 침입에 쉽게 정복되기 어려운 지형에 세워진 성읍들입니다. 골짜기나 강 주변에 성읍을 형성

하면 물 공급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방어하기가 좋습니다. 지형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성읍들 중에 왕이 거하고 귀족들이 거하고 각 지역의 군주들이 거합니다. 그러나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에는 우선 공격대상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평지의 성읍들에는 요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중요 인물들이 없고 평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세 공격에 대한 방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강한 나라의 군대가 굳이 정복하지 않아도 되는 성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지의 성읍들조차 황폐화될 것이라고 하니 모압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에서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에 관한 심판 예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과 소유를 의지하는 나라의 미래와 같습니다. 모압과 달리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를 이룬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모압과 같이 되지 않고, 이 정도의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나라에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업적과 소유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행하면 자연스럽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평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알려주시며,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는 마치 술병을 기울여 술을 옮겨 병을 비우시고 병을 깨뜨리시듯 심판하심을 모든 나라가 알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푸시어 오늘날까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게 하심으로 이 나라를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국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모압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그 소리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3. 현재 나의 업적과 보물(소유)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가족 또는 교우 또는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서 이것들 중에 버려야할 것은 무엇입니까?
4.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5. 이스라엘 집이 벤엘(하나님의 집)을 의뢰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예레미야 48:26-47

26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 거리가 되리다 27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28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29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3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31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다 32 십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다 33 기쁨과 환희가 옥도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침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다 34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아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예글랏 쉐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35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36 그러므로 나

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든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37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베가 돌렸고 38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 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 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40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퍼리라 41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42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4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네게 닥치나니 44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5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쩍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46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47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조롱거리가 될 모압(26-35)

예레미야 46-51장은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8장은 그중에서 3번째인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

입니다. 어제 1-25절의 말씀에서 모압이 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큰 2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7절 상반절의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의 말씀처럼 모압은, 자신들이 성취한 업적과 자신들이 가진 것을 신뢰했습니다. ‘업적’의 의미는 ‘손으로 만든 것’인데, 그들이 이룩해 낸 양 떼와 가축 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사는 염해(사해) 동쪽에 지정학적으로 튼튼하게 지어진 요새를 의미합니다. 모압은 비옥한 토지에서 많은 농작물을 재배했고, 요새와 같은 지형이 그들을 지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벤엘을 의뢰하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왕이 벤엘에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숭배함으로 나라가 멸망의 길을 간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전쟁의 신)’를 섬김으로 수치를 당하여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35절은 모압이 멸망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교만’이라고 증거합니다.

(26)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텅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으로 취하게 하라’는 명령문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종종 인간의 죄가 점점 크고 짙어져서, 하나님께서 참고 넘길

수 있는 한계를 넘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취한 사람들에게 비유되곤 합니다. 즉 모압의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한계가 지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많은 농산물과 요새와 같은 지형적인 유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로 이스라엘을 조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도 조롱하는 행동입니다. “쫂쫂!”이라고 혀를 차며 머리를 가로 젓는 것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인 롯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모압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보다 조롱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도둑이 아니었음에도 모압 사람들은 도둑 취급하며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모압은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민족에게 침략을 당하
지 않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넉넉한 수자원과
기름진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농산물로 인해서 경제
적으로도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고개를 가로저으셨습
니다. 그들이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아서 성읍과 거주지를 떠
나서 바위 사이에 숨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이 지리적으로 아무리 안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한 안전
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이렇
게 말씀하십니다.

(29-30)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모압은 교만, 자만(자고), 오만, 거만(자랑) 등 여러 ‘만(慢)’
자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심한 교만’에서 ‘심한’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

의 교만은 그 넓이와 높이가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압사람들은 지형적인 특성과 풍부한 경제력을 자랑삼아 교만한 말을 남발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노니’라며 하나님께서 모압의 교만함을 아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모압의 자랑은 허풍이며, 모압이 이루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4년이 지난 후인, B.C. 582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31)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거짓된 모압을 조롱하시거나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그런 삶을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특별히 ‘길헤레스 사람들’을 생각하며 슬피 우신다고 합니다. ‘길헤레스’는 염해 동쪽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곳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은 이미 다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2-3년 동안 더 버틴 곳이 있

었는데, ‘마사다 요새’였습니다. 그곳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길헤레스는 모압의 마사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33-34)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아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라

이제 모압 땅에서는 더 이상 포도주를 생산해 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의 상징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모압은 더 이상 기쁨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4절의 ‘헤스본’, ‘엘르알레’, ‘아하스’, ‘소알’, ‘호로나임’ 등 서로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들이 아닙니다. 모압 전역에 떨어져 있는 도시들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도 부르짖음이 들린 모압 전역이 초토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압이 받을 벌(36-47절)

36-47절은 전반부와 같이 모압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전반부가 멸망의 참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면, 후반부는 그 멸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36-38)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든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베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피리 같이 소리 내다’는 것은 주로 장례식장에서 애통하며 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모두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모두 밀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중동에서는 큰 재난을 당했을 때에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며,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칼자국(상처)을 내는 것, 베를 두르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또한 모압의 우는 소리가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지붕’과 ‘거리’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통곡하는 것은 그들이 당한 재난이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가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모압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거나, 바빌로니아가 강성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릇 깨듯이 깨뜨리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42)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왕이 모압을 공격하는 것을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고, 먹잇감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그 크기가 2m가 넘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시력은 2000m 상공에서 들쥐가 움직이는 것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수직강하 할 때, 그 속도가 시속 24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만큼 느부갓네살왕이 신속하게 모압을 공격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때에 모압 사람들은 여인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출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모압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압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개별적인 생존자는 있었을지라도 나라를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아랍 사람들과 혼혈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그 민족이 흔적도 없

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46-47)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46절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슬픔, 애통, 탄식을 표현하
거나, 재난을 직면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
이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모압 사람들이 얼마
나 열심히 그모스를 섬겼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모스는 국가
적인 위기를 당한 모압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음
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 아니 ‘믿는 신에게 발등 찍힌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마지막
절에서는 모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압이 망한 이후
로 다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메시아께서 온
전히 통치할 때에 모압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48장은 47절이나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압 민족은 롯의 후손들이었고, 다윗의 증조모도 모
압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틀’은 없
었고, ‘그모스를 섬기는 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새
같은 도시와 비옥한 토양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분별력
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가치관이 그모스나 우리가 만든 것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를 함께 지어주어 가게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바른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모압은 참 교만하였습니다. 요새와 같은 지형과 비옥한 땅이 자신들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모스 신이 전쟁에서 이기게도 해 주며, 지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바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임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분별력의 상실로 그들은 머리와 수염도 전부 밀어야 했고, 손에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굽은 베옷을 두르고, 공개된 장소인 지붕에서와 거리에서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혹 우리도 모압 사람들처럼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을 붙잡고서도 그것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서도 잘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속적 가치관의 틀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의 특징을 ‘심한 교만(교만의 최상급)’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견어내어야 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위치와 풍부한 농산물 등을 의지하다가 지붕과 거리에서 슬피 울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한 일은 없습니까? 그 때에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3.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의 백성’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모스가 모압 사람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4.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예레미야 49:1-22

1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나 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 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 헤스본아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베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4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5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6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데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 졌느냐 8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할 것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예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9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
 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10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
 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
 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11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
 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12 여호와께서 이
 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
 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13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랩과 치욕 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
 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14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
 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
 며 일어나서 싸우라 15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16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
 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7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19 보라 사자가 요단 강의 깊은 숲에
 서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
 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들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20 그런즉 에돔
 에 대한 여호와와의 의도와 데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
 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21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22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 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6-51장은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며 오늘 본문 49장 1-22절은 그중에서 4번째인 암몬과 5번째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이유가 없는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암몬과 에돔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지 본문을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1-6절은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을 심판하시는 하나님(1-6)

(1)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나

암몬 자손의 조상은 창세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당하고, 롯과 두 딸이 산 속에서 온 세상에 자신들만 남았다고 생각하여 두 딸이 자신들의 아버지인 롯을 술에 취하게 하여 동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며 어제 본문에서 다루었던 모압의 조상이고, 작은 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벤암미이며 암몬 자손의 조

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식과 상속자가 없냐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을 자녀와 상속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암몬에게 그 땅을 빼앗긴 이스라엘 책망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무력으로 빼앗은 암몬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암몬의 죄악은 무력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은 것이고, 갖을 점령한 것이 말감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말감은 암몬이 섬기던 이방 신입니다.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유업을 강제로 빼앗고 우상숭배를 하였기에 심판의 자리에서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암몬의 죄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암몬은 자신의 나라에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하였고, 재물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나라가 자신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며 교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지하였던 것은 이방신과 자신들의 재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암몬 자손과 같이 삶 속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나의 재물과 힘을 믿고 교만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과 제물을 의지하는 암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5-6)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
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
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암몬 자손에게 사방에서 두려움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교만함에 가득차 있던 암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
움으로 인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며 애통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은 암몬 자손에게도 포로 된 자들이
후에는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게까지 회복을 명하시는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7-22절)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후에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7)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데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

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은 ‘붉은’이란 뜻으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별명입니다. 즉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암몬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돔에게도 데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으나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하시며 질문 형식으로 묻고 계십니다. 에돔 사람들은 오바다 8절에서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으며, 데만은 에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고,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욥 2:11)가 데만 출신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를 믿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아닌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간 에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에돔에게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상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9-10)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모든 열매를 남기지 않을 것이고, 밤에 도둑이 욕심에 따라 물건을 훔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

판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지혜는 발가벗겨져 숨을 곳이 없게 드러나게 되며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상징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1)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을 고아들과 과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자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에돔은 자신의 힘으로 심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오히려 지혜와 명철이 없고 자생 능력이 없는 고아들과 과부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원에 손길은 자신의 지혜와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닌 자생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 나에게 닥친 일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나의 지혜와 명철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자랑했던 에돔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임하게 됩니다.

(12-1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람과 치욕 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더라도 반드시 마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더라도 절대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또한 13절에 보스라가 놀람과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부터 시작해 모든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혜 말고도 다른 이유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6)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전략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산꼭대기를 점령하고,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가 높이 있었기에 그들은 대적들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잠언 16:1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에돔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였고, 그들의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보며 교만함에 빠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 이러한 에돔에게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에돔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과 같이 이들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설교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

하기 위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 암몬과 모압은 모두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까지 인내하시며 충분히 돌아올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암몬과 모압은 지속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두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였지만 그들은 세속적 틀 안에서 자신의 지혜와 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며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진리와 생명의 틀로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임하는 나라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여 깨닫고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암몬 자손이 비옥한 골짜기와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욱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묵상해 봅시다.
3. 에돔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사회적약자인 고아들과 과부들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돕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4.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실천해 봅시다.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예레미야 49:23-39

23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24 다메섹이 꾀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25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26 이는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27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28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술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29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 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30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술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3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32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쩍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홀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3 하술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

게 되리라 하시니라 34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5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36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3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38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 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지는 이방 10개국의 심판 중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즉, 다메섹과 계달과 하술, 그리고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메섹이 받을 심판(23-27)

(23-24)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히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흥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으며 교통과 상업과 군사의 요충지로 물이 많은 평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맛과 아르밧 역시 아람을 대표하는 도시였으며 당시에 우상숭배와 더불어 많은 죄악을 행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혹독할 것이며 그로 인해 하맛과 아르밧의 동요가 극심할 것을 파도의 이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심판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예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 할 때에 임하게 됩니다.

25절의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은 다메섹을 가리켜 부르던 이름으로 다메섹이 전성기였을 때 불리던 별명이었습니다. 유명하고 칭송을 받던 도시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린 것이 되었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그대로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통치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메섹의 멸망의 모습을 26절과 27절에서 설명합니다.

(26-27) 이는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다메섹의 군사력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군사로 나갈 만한 젊은 남자들이 모두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이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원 전 581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 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라들의 역사와 운명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우리나라의 정세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주인,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달과 하술이 받을 심판(28-33)

(28-29)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술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 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게달 민족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 게달의 후손입니다. 게달은 양을 치는 목축업과 무역업이 활발하여 물질적으로 풍요

로웠을 것입니다. 하솔은 동방의 아라비아의 한 지방에 있는 작은 민족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풍요와 평안을 누리던 계달과 하솔을 약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계달과 하솔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물질적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는 바벨론이 계달로부터 약탈하게 될 물건들이 나옵니다. 장막과 양 떼와 낙타는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뺏기게 되는데, 그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계달은 풍요롭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재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심판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큰 보금자리로, 조금 더 편안한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애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보다 나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물질을 구하며 나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욥과 같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절에는 하솔 주민들을 향해 세 개의 짧은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도망하라, 너희는 멀리 가라, 깊은 곳에 살라’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도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31절부터 33절은 하술의 멸망의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31-3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빚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쥍을 꺾는 자들을 사면에 흘리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술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하술은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즉, 성문이나 문빚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으로 묘사됩니다. 동방 유목민들은 장막을 들고 이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문이나 문빚장 없이도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것처럼 풍요롭고도 평안히 살았던 자신들은 누군가의 침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술은 큰 뱀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큰 뱀으로 번역된 ‘탄님’은 자칼로 번역되기도 하고 송냥이, 시랑, 여우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거친 황무지에 사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와 같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엘람이 받을 심판(34-39)

(34)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와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 엘람에 대해 예언이 임합니다. 높은 지대라는 뜻의 엘람은 이란 고원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며, 수도 수산성은 엘람이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엘람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35절과 36절에 묘사됩니다.

(35-3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은 활로 유명하였기 때문에 엘람의 활을 꺾는다는 것은 그 나라를 무력화 시키며 그들을 파멸에 내던진다는 의미입니다. 엘람은 활과 같은 무기를 잘 다루는 강한 군사력으로 인해 교만하였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든든한 후원자로 여겼던 애굽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엘람 역시 시드기야와 마찬가지로 강한 활과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엘람은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하여 나라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37절과 38절은 그러한 엘람의 최후를 다시 한 번 설명합니다.

(37-3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 곳에서 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람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적이 엘람의 정면에 서고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임할 것입니다. 뒤에는 칼을 보내어 엘람의 등을 공격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준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 안에 차려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람을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재판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엘람의 왕과 관리들을 처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견고하며 온 우주를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나라는 자신의 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민족들을 위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9)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일은 끝날 또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때 엘람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람을 심판하시지만 언젠가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엘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예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나라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에 의해 심판을 받고 또 어느 때에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작은 경고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메섹과 게달과 하술, 그리고 엘람은 자신의 군사력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의지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의 운명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주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남유다는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경고 앞에 깨닫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말씀의 성취를 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께 이끌리어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우상을 숭배하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 오늘 하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작은 경고와 말씀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메섹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이상승배의 길을 걸었기에 그 결과는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나의 위상은 무엇입니까?
2. 게달과 하솔은 자신의 풍요로움을 신뢰하였습니다. 때로 물질을 축적하거나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3. 엘람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안정감을 누리며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오늘 당장 회개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 날 그 때에

예레미야 50:1-20

1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2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므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진다 하라 3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나라 4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6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결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7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8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 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9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10 갈대야가 악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악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1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 같이 우는도다 12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13 여호와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14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15 그 주위에서 고향을 지르리로다 그가 행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16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쪽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17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18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앗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19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20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낯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바빌로니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1(1-10)

예레미야 46-51장은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변 나라 10개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46-51장입니다. 그 나라들은 애굽에서 시작하여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술, 엘람, 그리고 마지막은 50-51장에 나타난 바빌로니아입니다. 오늘 본문 1-10절은 바빌로니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2)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므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빌로니아’와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빌로니아는 나라 이름을, 갈대아는 민족의 이름을 뜻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B.C. 18세기 함무라비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가 철기로 무장한 히타이트족에게 멸망을 당한 나라가 ‘바빌로니아’인데, 그것을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B.C. 626년에 시작되어 B.C. 608년에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자로 등장한 나라도 ‘바빌로니아’입

니다. 그것을 ‘신바빌로니아’ 또는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제국을 지배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오늘날의 이라크의 남쪽(이란의 서쪽)에 위치한 ‘갈대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대아는 바빌로니아와 동의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빌로니아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전하라고 하시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이르라’ 등 5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치실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빌로니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여러 신상들, 우상들은 물론 ‘벨’과 ‘므로닥’까지 부스러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바알’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듯이, 바빌로니아에서는 ‘므로닥(Merodach = 마르둑Marduk)’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마르둑’은 ‘벨’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즉 마르둑과 벨은 같은 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마르둑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을지라도, 그것 역시 우상이기 때문에 바빌로니아가 무너질 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바빌로니아는 미디어-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페르시아는 바빌로니아의 동쪽에 위치했고, 미디어는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는 북쪽에서 온 나라에 의해서 황폐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람으로부터 짐승이 다 우왕좌왕할 것이다'입니다. 즉 사람이 심판을 받으니 동물도 함께 영향을 받고,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리 저리 왔다갔다 방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빌로니아에게 임한 심판이 심각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잇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히리라

축구선수나 야구선수의 주전이 부상이나 슬럼프로 경기에 떨 수 없게 되면, 후보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돌아온다'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빌론 포로에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여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유다 자손들’은 그 때로부터 136년 후인, B.C.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망하여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함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망한 시점도 다르고, 끌려가 정착했던 곳도 다르지만 회복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솔로몬왕 이후로 나뉘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더 이상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형제관계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포로생활이 준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걸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실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또 ‘잃어버린 양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 것도 없는 짐승입니다. 사자나 하이어나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치타처럼 빠르지도 못합니다. 또한 뱀처럼 독을 머금고 있지도 않고, 카멜레온처럼 변색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있는 뿔은 뒤로 감겨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시력도 2-3m 정도 밖에 볼 수 없는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언제나 우리 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양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에는 맹수들이 득실대는 곳입니다. 그러니 양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산과 언덕'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게 됨으로, '실 곳_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맹수와 같은 바빌로니아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맹수와 같은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10)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로니아도 북쪽에서 오는 미디어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존재하는 수백 년의 기간도 한 점

이고, 우리의 인생도 몇 년을 살든지 한 점입니다.

바빌로니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2(11-20)

오늘 본문 11-20절도 전반부(1-10절)처럼 바빌로니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 바빌로니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왜 멸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 같이 우는도다

개역개정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1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리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소유를 노략질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너희가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뛰어다녔고, 군마처럼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빌로니아에게 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 ‘타작하는 송아지’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타작하는 송아지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았습시다(신 25:4). 힘들게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가 낱알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체 타작하는 것에 비하면 송아지가 먹는 것은 극히 소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라는 송아지는 끝없이 먹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남은 곡식은 발굽을 굴러서 망쳐버려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군마처럼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말을 타고 사람들을 살육하는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그것을 소리를 지르며 즐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빌로니아도 수치와 치욕의 대상이 되어서 바빌론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성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15)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 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포위하고 화살을 쏠 때에 ‘아끼지 말고 쏘라’고 하십니다. ‘아끼지 말라’는 의미가 중의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것이 ‘화살’입니다. 즉 ‘화살이 빗맞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나 ‘화살이 모자라는 것 아냐’와 같은 걱정하지 말고 전부 쏘라는 의미입니다. 내면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궁핍이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 바빌론은 더 이상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빌로니아의 무너짐은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유다)에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 이스라엘은 흠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계속해서 이스라엘(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양’, 그것도 ‘흠어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사자가 따라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아시리아의 왕’이 먹었다고 표현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왕’이 그 뼈를 꺾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들이 들소나 얼룩말을 사냥하여 먹고 나면, 하이에나 떼가 몰려와서 그 뼈까지 다 먹어치우는데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별주었듯이(무너뜨렸듯이), 바빌로니아의 왕과 그 땅도 벌을 줄 것이라(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스라엘(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 갈멜과 바산과 같은 좋은 목초지에서 양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양 떼’에 비유했었는데, 갑자기 양을 기르는 목자로 표현하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방 땅에서 맹수와 같은 바빌로니아의 왕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평화롭게 풀을 뜯어 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2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듯이, 후손들은 ‘출바빌론’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빌로니아가 무너지고, 유다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바빌로니아가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50개 주로 이루어진 미국이 각주가 각각 독립하여 50개국으로 바뀌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또 50여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이 50개의 나라로 나뉘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당시에 바빌로니아가 무너진다는 것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바빌로니아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날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면, 우리의 매일 매일은 ‘그 날과 그 때’가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님과 더불어 진리의 삶,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맞게 되는 ‘그 날과 그 때’를 지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날과 그 때’가 펼쳐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감으로 ‘그 날과 그 때’를 사시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강하고, 난공불락의 땅처럼 보이는 바빌로니아가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누리기 위해서만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과 그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오늘도 그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맞는 ‘그 날과 그 때’ 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 날과 그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만 보이는 바빌로니아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 사람과 짐승이 함께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그 때에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린 양 떼와 같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회복된 일이 있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날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때와 용서를 받은 날은 언제이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삶의 영역은 어떤 부분입니까?
4.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날과 그 때를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만 살아가기

예레미야 50:21-46

21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므라다임의 땅을 치며 브
 곱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22 그 땅
 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23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
 고 24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울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
 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25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
 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26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
 고 남기지 말라 27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라 28 바
 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의 보복
 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29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
 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30 그러므
 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
 호와의 말씀이니라 31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32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33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 주지 아니하리라 34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3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36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37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38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39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40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41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42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 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43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들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44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45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와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와 생각을 들
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
하게 하리니 46 바벨론이 악탈 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
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변에 있는 10개
의 이방나라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
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46장에서 51장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들은 애굽에서 시작하여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
섹, 게달, 하솔, 엘람, 그리고 마지막 나라는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 10번째인 ‘바벨론’입니다.

어제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예언
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자손을 회복시키신다는 예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통해 성령님과 더불어 진리의 삶,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
엘의 회복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21절에서 46절 말씀
도 여호와께서 바벨론 땅과 그 백성들에 대해 보복 하신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

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동안 바벨론은 23절 전반절 말씀에 나오는 ‘온 세계의 망치’와 같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쳐부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그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대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23절 후반절 말씀에는 이제는 완전히 부서져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와 같이 변해 버렸다고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의 망치’와 같이 세계에서 참 잘나갔던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자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얼마든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전성기 때의 바벨론처럼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24B)’고 설명합니다. 결국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고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큰 파멸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교만은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26A)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공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해 어떠한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일으키고, 그 나라에게 본격적인 전쟁을 지시하십니다. 바로 이 나라는 지금의 이란 고지대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통치하던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진멸하라’는 동사가 21절과 26절에서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21B)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26B)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30절 말씀에도 ‘진멸하다’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어휘인 ‘멸절되리라’는 표현이 함께 나타납니다.

(30)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얼마
나 철저히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지 ‘진멸하되’, ‘진멸하
고’, ‘멸절되리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8)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28절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예
루살렘 성전에 가한 잔혹한 행위들에 대해 이제는 보복 하신다
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29절 후반절에서도 바벨론이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였던 대로 공의의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
고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합니다.

(29B)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
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은 바벨론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34절 전반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
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줍
니다.

(34A)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반면에 그들을 억압하였던 바벨론 주민들에게는 불안을 주실 것이라고 34절 후반절과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4B-35)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칼이 갈대 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 지리라

이처럼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느 편에 서 있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출7-12장) 할 때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때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들을 출애굽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백성들에게는 심히 떨며 불안하게 하는 일이지만,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며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루 하루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만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5-40절은 바벨론 주민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35절에서 37절까지는 ‘칼’로 38절에서 40절까지는 ‘가뭄’이라는 도구를 통해 끔찍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칼이 바벨론의 지배 계층, 주민들과 고관들, 지혜자들, 자랑하는 자, 용사들, 말들과 병거, 보물들,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 하시는지는 24절 후반절에서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이고, 28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한 잔혹한 행위들 때문이고 29절 후반절에서는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38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38)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바벨론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가 심판의 원인이었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끔찍스러운 우상들로 인해 그들이 결국에는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39절 말씀에 바벨론 땅은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되고,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하는 사람

이 영원히 없을 것이며, 40절에서는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바벨론도 철저하게 파괴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어떤 범죄보다 ‘우상숭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의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루 하루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시간과 돈, 열정을 어느 곳에 많이 쏟고 사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과연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44)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4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세 개의 수사 의문문이 나옵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능한 전능하신 분임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서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멘토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와 좋은 책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고 유한한 것이며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46절 말씀입니다.

(46) 바벨론이 약탈 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의 역사 속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또 하나의 경고로 많은 나라들 가운데 남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여호와와 싸웠고(24B), 예루살렘 성전에 잔혹한 행위들을 하였으며(28),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고(29B),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38)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찌면 바벨론보다 더 끔찍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세상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도 마치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며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편에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여 우리의 생각과 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일들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만 서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통해 성령님과 더불어 진리의 삶,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함께 지어저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온 세계의 망치'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바벨론이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삶 속에서 이러한 불안전함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2. 바벨론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 때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주로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한 교만함이 드러납니까?
4. 당신은 하루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쏟고 있습니까?
5. 당신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매일 매일 무엇을 결단하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예레미야 51:1-32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2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3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난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4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5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므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 받은 홀아비는 아니니라 6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7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 잔이라 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8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9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라 10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11 화살을 갈며 등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

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는 것이라 12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13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14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15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16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7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8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 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19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 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20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21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22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23 네가 목자와 그 양 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겟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도다 24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율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26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잇돌이나 기춧돌을 취하지 아니

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7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28 못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29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30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 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지방은 부러졌으며 31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을 사방이 함락 되었으며 32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예레미야 51장은 50장부터 이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 10번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대에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 ‘금잔’(7절)과 ‘철퇴’(20절)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로서 행패를 부리기에 급급했지 약한 나라를 보호해 주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

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심으로써 강한 자의 교만의 결과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바벨론 포로 세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도구로 사용하실 나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1-14)

(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창조주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다음은 징계를 통하여 세상의 평화와 공의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각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무자비한 유린과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교만한 바벨론의 왕들과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자”를 부추기신다고 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데, 본문에서 2절의 “타국인”, 11절의 “메대의 왕들”, 27절의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들”, 28절의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모든 태수”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메대는 현재 이란 북서쪽과 카스피해 아래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메대는 바사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그 이후 바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합병되었습니다. 27절의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들”은 당시 메대의 속국인 나라들로서 메대보다 지리적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나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라랏’은 아라랏 산 주변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아라랏 산은 해발 5,137m로서 노아 방주가 홍수 후에 머물렀던 산이며, 현재는 터키 국경 최동단, 이란과의 국경지 인접에 위치해 있습니다. ‘민니’는 아라랏 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300km 아래에 위치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란 영토 우르미아 호수 아래 지역에 해당합니다. ‘아스그나스’는 아라랏 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위치에 있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터키와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르메니아 동쪽지역입니다.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 멸망당하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어떤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나라들을 도구 삼아 바벨론을 치시는데 2절에는 곡식을 “키질”하시듯, 25절에는 “바위에서 굴리시고”, “불 탄 산”처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3,4절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의 군사들이 바벨론의 갑옷을 입은 장정들에게 활을 쏘 것인데 갑옷도 무용지물이 되어 관통상을 당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5)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므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 받은 홀아비는 아니니라

5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이스라엘과 유대를 언급하신 이유는 이들이 심판받는 것과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과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기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2절에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버림받은 홀아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언약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혔던 사망권세를 이기심으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 시대를 보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림받은 홀아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상태가 환난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처럼 무

자비한 자가 유다를 포로로 잡고 있듯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무자비한 자를 보복하실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역시 한 때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 화살을 갈며 등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을 도구삼아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보복당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하나님의 성전을 훼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 “여호와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와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남 유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 받을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이는 2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행동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거역한 남 유다 사람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될지언정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한 교인에 대해 안타까워할 수 있을지언정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교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또 다른 원인으로 그들의 좋은 환경과 재물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 많은 물 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당시 바벨론에는 풍부한 물을 제공했던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요한 물줄기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었기에 비옥한 땅의 소산물을 수확하였습니다. 또한 강한 나라로서 전쟁의 승리로 전리품이 많았고 강대국으로서 많은 교역이 이루어져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유한한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에게 ‘재물의 한계, 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유한한 것에는 모두 한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에 잇대어진 삶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15-24)

(15)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론 심판을 언급하시다가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과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태양과 바람과 폭풍 등의 자연을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라고 말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벨’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의 많은 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니” 구름이 하늘 위로 오르고 그 구름으로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바람을 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분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인간의 경험과 지혜로 자연 법칙을 해석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각종 신들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이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은 한낱 돌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 몸

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조금의 생기도 없는 돌과 나무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말하며 그것에 절한다는 것은 17절 말씀처럼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입니다. 18절 말씀처럼 “그것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입니다. 나무나 돌 조각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더라도 혹시 마음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의 조각으로 다양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좇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무식하다도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2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한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철퇴는 끝에 쇠뿔치가 달려있는 몇 미터 길이의 막대기형 무기입니다. 아주 크고 긴 망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퇴로 도구를 삼았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철퇴를 맞을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과 남유다에 대한 악행을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25-32)

(2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25절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바벨론은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고 불 탄 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기에 어떤 것도 재활용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집이 무너져도 그 주춧돌은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것조차 사용될 수 없을 정도의 황무지가 된다고 합니다. 25-26절이 비유로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27-32절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공격할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군대는 극성스런 메뚜기 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29절에는 바벨론이 황폐화되어 주민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30절에는 용사들은 요새에 남아 있더라도 무기력하여 여인같이 되며, 요새의 문빗장은 부러졌고, 보발꾼과 전령의 소식은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다는 보고와 모든 나루가 빼앗겼다는 보고와 군사들의 겁에 질렸다는 보고일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영화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직접 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기자처럼 전달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바벨론의 악행을 두고 바벨

론을 정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설교 본문 중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하루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을 반면교사 삼아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아가십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멸망의 긴 장면이 이 세계에 어떤 나라에도 재현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그 나라의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철퇴를 맞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바벨론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옵고 바벨론과 같은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와 보복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삶,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금잔’(7절)과 ‘철퇴’(20절)로 사용되었지만 바벨론이 그 도구들로 심판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당하였겠습니까?(8절, 24절)
2.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심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많은 물 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13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4. 하나님을 찬양함(15-16절)과 우상 숭배자의 어리석음(17-18절)과는 무슨 연결점이 있습니까?
5. 바벨론의 멸망을 예수님께 보고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눅13:1-5을 근거로)

바벨론에 다칠 모든 재난

예레미야 51:33-64

3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34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 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35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36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37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 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38 그들이 다 젊은 사자 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 같이 으르렁거리며 39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0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41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 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42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43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44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45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46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47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48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9 바벨론이 이스라
 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
 러지리라 50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
 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51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
 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
 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52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
 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3 가
 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
 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
 씀이니라 54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55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 같이 그 파도가 사나
 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56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
 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
 는 보복의 하나님이니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57 만군의 여호와라 일
 권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
 나지 못하리라 58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휘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 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59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사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60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다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61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62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 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 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63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테 강 속에 던지며 64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꺾어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33-40)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6장에서 시작된 유다의 주변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의 마지막이자 결론과도 같습니다. 50-51장은 10번째 나라인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은 46절로 이루어져 있고, 51장은 6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무려 110절이나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짧게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길게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중요성의 유무나 믿음의 깊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고, 버림받은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빌론도 그와 같습니다.

1-32절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빌론은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바빌론의 역할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7절입니다.

(7)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빌론의 역할이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회사에서 직원들이 회식을 가졌는데,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과장이나 부장, 특히 회사 대표가 술잔을 돌리며 권하면,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빌론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은 것 후에 마치 ‘폭탄주’를 돌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죄를 범한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20절입니다.

(2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바빌론의 역할이 하나님의 ‘철퇴’ 곧 ‘무기’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형편없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바빌론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바빌론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빌론을 타작할 때가 된 마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쌀이나 밀, 보리 등의 타작을 전부 기계로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마당에서 했는데, 곡식의 유실을 줄이기 위해서 평평한 마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면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부분을 깎거나 메워서 밟로 밟았습니다. 그것처럼 바빌론의 도시들에는 높고 낮은 집이나 성벽 등의 건축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너뜨림을 당하여 평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 때’는 ‘약탈의 때’와 동의어였습니다. 바빌론의 성들이 적의 공격으로 탈취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른 타작마당’은 바빌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그림언어와도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바빌론이 유다를 삶은 감자를 으개듯이 황폐하게 만들었고, 거대한 뱀이 토끼나 어린 사슴을 통째로 삼키듯이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37)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 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백성들의 송사(호소)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호소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은 물론, 승냥이(여우)와 같은 짐승들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바빌론이 저렇게 될 수 있지?”라고 말하며 놀라워하는 것을 받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결국을 이렇게 짐승에 비유합니다.

(38) 그들이 다 젊은 사자 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 같이 으르렁거리며

(40)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한 때 바빌론은 백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사자와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넘어뜨리지 못할 나라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어린 양’, ‘숫양’, ‘숫염소’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양과 염소가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염소입니다.

바빌론의 운명(41-58)

계속해서 41-58절은 몰락해가고, 무너져가는 바빌론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1)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 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애가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노래하며 시작하는 첫 단어가 ‘슬프다(에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도 ‘슬프다’라고 2번이나 표현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함락되다’, ‘빼앗기다’, ‘황폐하다’입니다. 바빌론이 멸망되는 과정을 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삭’은 ‘바빌론’을 표현하는 암호 문자와도 같습니다. ‘바빌론’을 영어단어 자음으로만 표현하면 ‘BBL’입니다. 이것은 영어 알파벳의 2번째와 12번째입니다. 이 순서를 뒤에서부터 2번째와 12번째 알파벳을 찾으면, ‘YYO’입니다. 이처럼 ‘바빌론’을 히브리 알파벳을 거꾸로 하여 만든 단어가 ‘세삭’입니다. 이것은 멸망하는 바빌론을 조롱하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는 ‘바빌론이 꿀종게 망했도다’의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바빌론의 최고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벨’은 ‘마르둑(Marduk)’, 또는 ‘메로다크(Merodach)’의 별칭이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전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곧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에서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최고의 신을 이스라엘에서가 아닌 바빌론에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바빌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파년쳐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성은 높은 곳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중(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 불락의 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인공 운하는 주로 전쟁포로들의 강제노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었고,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멸망시킬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높은 업적을 쌓아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바빌론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지킬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사는 것이 겸손이고, 믿음입니다. 또한 바빌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54-55)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 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소리’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빌론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미디어와 페르시아(메테-파사)의 연합군의 ‘공격하는 소리’가 뒤엉켜서 그 처참함을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2004년 연말의 남아시아 대지진(쓰나미)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쓰나미로 인해서 인도네시

이는 초토화되었고,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 피해 국가가 21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지진해일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바빌론을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라야에게 명함(59-64절)

바빌론에게 내려질 이런 재앙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59-60)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사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다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시드기야왕 제4년’은 B.C. 593년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7년 전이라,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2번, B.C. 605년과 B.C. 597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향하는 스라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스라야는 병참감(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나 대통령 경호처장)으로서 역할도 해야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일이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빌론에 닥칠 모든 재난’인데, 50-51장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바빌론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64)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빌론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처음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빌론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빌론은 그 말씀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눅 13:2-3)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니
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다시 써 보면 이러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빌론 제국의 사람들이 이같이 무너지는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에 바빌론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몰락해가는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갈 때에는 유다는 영원히 끝난 것 같고, 바빌론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은 영원히 끝내시고, 유다는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매일을 마음을 바꾸고, 삶을 교정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가느냐, 더 나아 보이느냐 보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도움이 자신에게서 온다고 생각하면 그가 바로 바빌론 제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중심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인생이 될 거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강대국이나 몰락해가는 유대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빌론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에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2.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바빌론과 유다를 비교하면, 바빌론은 영원할 것 같고 유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당신의 삶과 신앙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3. 바빌론 제국의 멸망은 단지 역사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의 무너짐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4. 바빌론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예레미야 52:1-34

1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2 그가 여호야קים의 모든 행위를 본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3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4 시드기야 제구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5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십일년까지 포위되었더라 6 그 해 넷째 달 구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7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결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8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9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10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늦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12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열 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13 여호와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4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15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16 가난한 백성은 남겨 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17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홑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홑대야를 깨뜨려 그 홑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18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홑그릇을 다 가져갔고 19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술들과 쫓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20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홑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홑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21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십팔 규빗이요 그 둘레는 십이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22 기둥 위에 홑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다섯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홑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23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아흔 여섯 개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백 개이었더라 24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나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25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칠 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육십 명이라 26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27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립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28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칠년에 유대인이 삼천이십삼 명이요 29 느부갓네살의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팔백삼십이 명이요 30 느부갓네살의 제이십삼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칠백사십오 명이니 그 총수가 사천육백 명이더라 31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삼십칠 년 곧 바벨론의 에월브로다 왕의 즉위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32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33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 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34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기사는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36장). 그런데 46-51장까지의 열국에 대한 심판 뒤에 또다시 반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마땅한 보응으로 열국은 심판을 받지만, 유다 또한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기에 경각심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역사는 예언의 최고 해설자이다”는 말처럼, 화평을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닌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진리였으며 일점일획도 어긋남 없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패망(1-11)

(1-2)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아십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인 예레미아의 딸 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 뒤, 여호야김의 숙부였으며 요시아의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과 더불어 요시아의 아들이었지만 서로 어머니가 달랐습니다(왕하 23:36). 바벨론을 배반했던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친바벨론파였던 시드기야를 선택한 것은 후궁 내부의 파벌 문제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같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가 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발견하고 개혁을 주도했던 의로운 왕 요시아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했습니다(렘 22:16). “자녀교육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요시아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 선을 행하지 않고, 조상들의 악행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여호야김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며 압박과 포악을 행했습니다. 특히 시드기야는 자기 형 여호야김을 본받아 바벨론의 왕에게 반역한 일이 그의 백성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본받는 것보다 악을 본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자주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

다. 우리의 눈과 귀가 주목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면 주를 닮아가겠지만, 세상이라면 세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은 둘 다 앞선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렘 21:1-10, 36:1-31).

(3)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께서도 오죽했으면 쫓아내시기에 이르렀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화가 날 때 하는 행동이 집에서 쫓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역사하셨을 뿐입니다.

(4-8) 시드기야 제구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십일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구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결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18개월 동안 성이 에워싸이고(21:4),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먹을 음식이 떨어지고(21:9), 약해진 군대가 효과적으로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어 성벽이 깨어지자,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은 불명예스럽게 밤중에 도망치다가 느부갓네살의 손에 잡혔습니다(21:7).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되었습니다. 악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버립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자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참 된 왕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어주신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사실은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9-11)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못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에게 임할 것이고 그 죄인이 어디로 도망하든 그를 붙잡을 것입니다(신 28:15).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위한 지,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될

지를 그에게 여러 번 말해주었습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수 있었음에도 평안할 때의 경고를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당장 아무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할 때 삶의 변화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 유수<幽囚>(12-30)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이며 17절부터 23절은 약탈에 대하여, 24-30절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12-13)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연대가 시드기야 통치에서 느부갓네살의 통치로 바뀐 것은 시드기야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대리인으로 파견 된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성전과 왕궁과 모든 큰 집을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가장 끔찍한 파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군대는 사면 성벽을 헐어 버림으로써 성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 두었습니다.

(17)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홑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홑대아를 깨뜨려 그 홑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이런 성전을 불태우기 전에 아래와 같은 장식품들을 가져갔 습니다. 성전의 두 홑기둥과 열두 홑 소 위에 있는 대아인 “바 다”, 이동용 받침대 그리고 홑이나 은금으로 만든 모든 물품들입 니다. 이러한 약탈된 다양한 물품을 열거한 뒤, 본문은 예루살렘 의 패배가 가져온 인명 사상자를 소개합니다. 종교와 정치의 여러 고위 관리들로 시작하여 군대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 습니다.

(24-25)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리아와 부제사장 스바나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 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칠 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 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육십 명이라

바벨론은 유다의 주요 종교, 행정, 군사 지도자들을 모두 데려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하나 도 없는 상태가 되게 합니다. 이들의 강제 추방은 뒤에 남은 주 민들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참한 사건의 기술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는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내용으로 마칩니다.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 파괴도 추 방도 아닌, “여호야긴” 왕의 석방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혈통(31~34)

(31-34)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 곧 바벨론의 에일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 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때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일므로닥” 통치의 첫 해였기에, 그는 온정 어린 제스처로 여호야긴을 석방했을 뿐 아니라, 사로잡혀 온 모든 왕들 가운데서 그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역경과 형통은 서로 언제든 뒤바뀔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해야 하는(고전 7:30)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환난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마침내 동이 터오를 것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벗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죄수로 37년을 살았던 여호야긴은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서 자유의 달콤함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106:44-46)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압제자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놓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어려움 아래에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환경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위함을 보았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혈통에게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며 영원한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삼하 7:16).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죽음으로 족보가 끝나지 않게 하시며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 그를 유다의 왕(31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우리와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빠르게 적용하고, 삶에 바르지 못한 부분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

을 성령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영원에 잇대어진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동안 평안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며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의 변화가 삶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진리와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드기야가 본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그가 본받았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2.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죄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갖게 됩니까?
3. 감옥에 갇혀 있던 여호야킨이 풀려나 왕에게 은혜를 받는 것을 볼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당신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당신이 처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